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02월

석사학위 논문

폭력비행청소년의
인지행동치료 기반 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송 희

폭력비행청소년의
인지행동치료 기반 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Integrative Program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of Violent Adolescents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송 희

폭력비행청소년의
인지행동치료 기반 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송 희

김송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6
제2장 문헌고찰	7
제1절 폭력청소년의 이해	7
제2절 뇌과학과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8
제3절 비행청소년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9
제3장 연구방법	12
제1절 질적 사례연구	12
제2절 연구대상	13
제3절 자료수집 방법	13
제4절 인지행동치료 기반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15
제5절 연구자의 준비	19
제6절 자료분석	19
제4장 분석결과	21
제1절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1
제2절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결과	23

1. 프로그램회기 내용분석	23
2. 사고기록지 인터뷰 변화 분석	33
3. 프로그램 종료 후 소감문에 대한 주제 분석	48
제5장 결론 및 제언	52
제1절 결론	52
제2절 제언	54
참고문헌	56
부록	63

표 목 차

표 1.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16
표 2.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2
표 3. A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의 감정변화	33
표 4. B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의 감정변화	35
표 5. C군의 사고기록지 인터뷰의 감정변화	38
표 6. D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의 감정변화	40
표 7. E군의 사고기록지 인터뷰의 감정변화	42
표 8. 인터뷰과정에서 경험한 변화	44
표 9.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78
표 10. 상태특성분노표현의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	79
표 11-1. 부적응적사고 요인별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	80
표 11-2. 부적응적사고의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	81
표 12. 공격성의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	82
표 13.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사전·사후 변화검증통계	83

그림 목 차

그림 1. A양의 감정변화 그래프	34
그림 2. B양의 감정변화 그래프	36
그림 3. C군의 감정변화 그래프	39
그림 4. D양의 감정변화 그래프	40
그림 5. E군의 감정변화 그래프	43
그림 6.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사전·사후 비교	79
그림 7. 내면적, 외현적부적응적 사고척도 사전·사후 비교 ..	81
그림 8. 공격성 척도 사전-사후 비교	82
그림 9.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 사전·사후 비교	83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Integrative Program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of Violent Adolescents

Song Hee Kim

Advisor : Prof. Kweon Hae Soo, Ed.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group program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juvenile delinquents. The quantitative effect analysis of previou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s is limited in explaining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and the therapeutic changes through the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quantitative performance analysis as a complex analysis unit was included in the qualitative case analysis.

The program was operated for five or three days, seven hours a day for a juvenile delinquent aged between 13 and 18 who is trained before the court's disposal after a violent flight. In the process,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quantitative data on anger expression, maladaptive thinking, aggression, and changes i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s a data for the qualitative case study, we collected the outcomes of the participants' activities, the behavioral and interview data, interviews and testimonials, and telephone interviews. Qualitative interview data was quantified for each adolescent case for in-case analysis to deal with emotional changes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In order to conduct case-by-case analysis, we searched for the common themes of th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central themes.

By integrating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into the composite analysis unit within the qualitative cas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by violent juvenile delinquents resulted in an experience of controlling anger, reducing external maladaptation, decreasing aggressiveness and increasing problem solving.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develop a re-crime prevention program in the future.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18년 6월 고등학생 A양은 SNS에서 만난 B양과 다른 가해자들에게 밤10시부터 새벽까지 집단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노래방에서 구타하는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노랫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폭행했으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관악산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속 하였다¹⁾. 가해자 중에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있었다. 2018년 11월 인천에서 중학생 C군이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사 하였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명은 사망한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²⁾.

이처럼 최근 청소년 범죄는 성인범죄 못지않게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 지능화 되고 있다(남선모, 2014; 하태선, 2014).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와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의 죄책감 없는 모습에 분개하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또다시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고, 이로써 청와대는 4번째 답변³⁾을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초기 답변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에 동의는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에는 변화가 없었고, 보호처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2018년 연이은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과 피해자 자살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거듭되자, 청와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후 소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근 소년 범죄 양상을 보면, 소년인구 감소로 전반적 범죄 소년의 수는 양적 감소를 보였지만 범죄 수법과 흉포성, 잦은 재범 등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의 수는 '17년 35,427명에서 '18년 32,291명으로 8.9% 감소했지만 폭력 범죄 소년은 30.4%에서 32.3%로 증가하였다. 재범률은 33.8%로 '17년 이후 34%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1) 나무위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https://namu.wiki/w/>

2) 나무위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https://namu.wiki/w/>

3)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올라온 국민 청원이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와대가 직접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다.

3명 이상의 재범자는 50.8%로 2명 중 1명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촉법 소년의 수는 '17년 3,167명에서 '18년 3,416명으로 7.9% 증가하였다(경찰청, 2018). 소년인구의 감소에 비해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비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폭력범과 지능범죄의 증가, 높은 재범률 유지, 촉법 소년의 범죄 부담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적이고 사회 격리적인 강력한 개입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범죄의 원인들 중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우발적' 원인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양식이 범죄의 위험 원인이라고 보고되었다(범죄백서, 2017). 우발적 원인으로 무거운 처벌적 형벌을 받게 될 경우 일시적일 수 있는 범죄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비행과 재범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 재진입과 적응이 어렵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쉽게 반복적인 비행을 하게 된다(Lement, 1967).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심각성과 경중에 따라 부과하는 처벌적 해결책이 소년들을 우발적 범죄자에서 성인범죄자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성인 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이 늘어나게 된다는 연구결과(Redding, 2008)를 보더라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처벌이 아닌 치료와 보호, 재범 예방 등의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통한 재사회화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비행 예방과 재범 예방 개입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안지선, 김정남, 2013; 신혜민, 2016; Woolfenden et al, 2002; Landenberger and Lipsey, 2005; Reitzel et al. 2006; Foley, 2008; Persons, 2009). 범죄 소년의 재범 감소를 위해 부모양육훈련과 가족치료가 중요하며(Woolfenden et al, 2002), 지역사회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서 개입하도록 한 프로그램의 재범감소효과에 대해 재평가하기도 했다(Morrall, 2004). Landenberger & Lipsey(2005)는 비행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Interpersonal problem solving)과 분노 통제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CBTP) 메타분석 연구에서 재범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참여 12개월 후 재범률이 평균 25% 감소하거나, 최대로 50%까지 감소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요소 중 인지재구조화와 분노조절이 재범률 감소에 중요한 요소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도록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Wilson, Bouffard, & Mackenzie(2005)는 수형자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CBT) 20

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20~30% 재범률 감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분노 조절, 충동성, 공격행동, 폭력, 성폭력 등에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검증되어 왔다(민성길, 이호분, 육기환, 남궁희승, 류경희, 1999; 김지현, 2004; 서수균, 권석만, 2005; 성은주, 2005; 류창현, 이수정, 2010; 김정민, 박준희, 한정은, 2007; 현문정, 2014).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메타분석에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효과성(0.65)이 인간중심이론(4.68)이나 현실치료(1.87), 해결중심(2.67), 놀이치료(1.4), 심리극(1.64), 미술치료(1.11), 음악치료(1.22), 원예치료(0.9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안지선, 김정남, 2013). 또한,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에서 인지와의 접목을 통한 통합적 접근(1.019)이나 매체활용 접근(0.785)에 비해 인지행동적 접근의 효과크기(0.775)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신혜민, 2016).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연구 결과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다른 이론적 배경의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 크기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낮은 효과성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기존 연구의 효과성 측정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연구와 달리 인지행동치료 효과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재범률 감소를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다(류창현, 이수정, 2010). 종단적으로 추적 연구한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2013)의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연구에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후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7년 생존분석을 통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체 집단의 재범률은 39.1%, 기존프로그램을 실시한 대조 집단의 재범률은 53.7%, 비수강 통제집단의 재범률은 6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률 감소가 나타났다. 재범의 횟수도 인지행동치료 집단은 평균 0.59, 대조집단은 1.43, 비수강 집단은 1.12로 인지행동치료 집단의 재범 횟수가 집단 간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류창현, 이수정(2010)은 비행청소년(소년수용자) 대상으로 3년(36개월) 기간 동안 재범율과 생존율을 추적하였다.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과 분노감소를 위한 웃음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비교”(류창현, 이수정, 2009)의 종적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9명(인지행동치료집단 38명, 웃음치료집단 31명)에 대한 재범률을 법무부에 의뢰하여 추적 조회를 실시하였다. 생존자(재범하지 않은 사람) 비율을 보면 인지행동치료집단 84.2%로 10명중 8명 이상이 재범하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달리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연구에서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안지선, 김정남, 2013; 신혜민, 2016)는 상이한 결과로는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논하기가 쉽지 않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가 폭력관련 인지변화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로 주었는지, 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은 어떤 경험들을 했으며, 그 참여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지는 양적인 효과 측정을 통해 분석되지 않는다. 또한 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모두 다 같은 효과를 경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각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성장해왔으며, 각기 다른 비행 경험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프로그램의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양적인 효과 측정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별적 사례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성길(1999)의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기기술형 비행 척도와 폭력행동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대상자에 대한 교사용 문제행동척도에서는 사전-사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상희 (2013)의 연구에서는 공격신념에서 사전-사후 반복측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은주, 성현란(2005)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사전-사후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2000)의 연구에서는 사전-추수에서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류창현, 이수정(2009)의 연구에서 분노표현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대인관계 예상, 적극적 분노표현지지, 소극적 분노표현지지, 분노억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서명옥, 장현아(2014)의 연구에서는 분노와 문제행동은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지만, 충동성과 공격성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양적연구에서 연구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결과에 대해 양적 분석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은주 (2008)는 양적연구를 수행할 경우 양적인 효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경우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석하기 어렵고, 질적인 연구로는 결과에 대해 대표성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한계점들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단계에서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정량적, 정성적 연구방법의 한계를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 질의 통합적 방법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양적인 효과 측정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자동적 사고기록지를 사전·사후 작성하도록 하거나(김정민, 박준희, 한경은, 2007), 3일 동안 매일 소감문과 자서전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내용을 기술한 연구(양승남, 2003)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질적인 자료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제시하거나, 비행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한 개별적 사례를 해석하거나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행재범예방 프로그램들 중 대상자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인지행동치료 기반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권해수, 윤일홍(2018)이 개발한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재구성 하여 운영하고 비행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질적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량적, 정성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폭력 비행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의 경험의 의미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사고기록지 인터뷰, 참여자 관찰을 통한 집단지도자의 행동 및 면담일지와 과정평가 기록지, 프로그램 활동과정 결과물, 소감문, 프로그램 종료 후 전화 인터뷰 등의 질적 자료와 함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양적 연구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가 중요한 것과 같이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신뢰성(엄격성)을 강조하였다. Lincoln & Guba(1985)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였다. 지속연구의 수행과 삼각검증법, 동료검증을 통한 연구자의 선입견을 제거,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와 검증의 통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자료의 삼각화 방법은 사회과학, 행동과학에서 통합자료의 분석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료 분석 방법이다(A. Tashakkori와 C. Teddlie. 2001).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에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양적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척도를 측정하여 정량적 자료를 포함시키는 복합분석단위의 질적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하는 삼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자료 분석 과정에서 동료 검증의 과정을 거쳤고 사후 동의를 얻은 청소년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의 해석에 대한 참여자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폭력비행 청소년들의 참여경험을 알아보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어떠한 요소로 인해 치료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처분 전 교육대상자로서 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폭력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행동치료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폭력 신념에 대한 인지왜곡과 인지결핍, 폭력 가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부적응적 사고(비합리적 신념과 인지 왜곡), 대안적 반응, 친사회적 해결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폭력 비행 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 폭력 비행 청소년들의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을 탐색한다.
- 나. 폭력 비행 청소년들의 분노표현, 폭력신념, 공격성,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변화를 탐색한다.

제 2 장 문헌고찰

제1절 폭력청소년의 이해

200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소년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3세의 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라고도 부르며, 이들은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이들은 법원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8세의 소년으로 보호처분이나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8세의 청소년으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소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말한다(청소년보호법, 2009). 비행 청소년은 위의 세 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정의는 살인이나 강도 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서부터 음주, 흡연, 절도에 이르기까지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박성수, 1995; Weiner, 1982). 본 연구에서는 형법에 저촉되어 처분을 받거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특별교육 등을 받는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겠다.

비행 청소년들 특성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능력의 건강한 발달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조망능력이 부족하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인지능력의 제한이 있다(이창호, 양미진, 이회우, 이은경, 2005; 원호택, 1991).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표현이 미숙하여 감정표현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비행을 일으키며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나 대응행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적대적 해석으로 인한 공격적, 반사회적, 즉각적 문제 해결하는 성향(한동주, 2006;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이 강해서 범죄에 이르기 쉬우며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공격성과 충동성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성은주, 2005). 일반 청소년 보다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았고, 자기 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주어진 상황을 비행기회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정혜승, 1996), 다수의 범죄나 비행이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Gottfredson, Hirschi, 1990).

위에서 살펴본 비행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왜곡된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적의(敵意)를 탐지하는 경향이 높다. 2) 자신에게 과장된 자격감을 가짐으로써 폭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3)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성향이 높다(Crick & Dodge, 1994). 4) 결국 자신은 상대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며 선의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다. 5) 미래의 이익보다 폭력으로 얻게 될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다. 6)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친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익힐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권해수, 윤일홍, 2019).

청소년들의 비행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비행 행동이 안정화(stability) 되어 반복적 재범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첫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재범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것을 비행 행동의 안정화라고 한다(김헌수, 김현실, 2001). 비행 행동을 안정화시키는 재범 예측 요인을 찾고, 이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청소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이 갖는 인지적 특성과 친사회적 기술의 부족이 청소년의 비행 행동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따라서 초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왜곡과 폭력신념을 다루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과 폭력이 아닌 대안적인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비행의 재발과 안정화로 진입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2절 뇌과학과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최근 뇌과학의 발달로 인지행동치료가 뇌신경회로를 변화시킨다는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다(Fu et al., 2008; Ritchey et al., 2011). 인지행동치료를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정신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었으며, 뇌과학의 발달로 정신질환의 치료 효과에 대해 시냅스의 생성, 변형 등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인지행동치료가 폭력성과 관련한 뇌신경회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뇌를 fMRI를 통해 살펴보면 일반인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Chugani et al., 2001; Popma et al., 2006; Vaske et al., 2011). 전전두엽의 회백질의 양이 적음을 알 수 있는데, 회백질에는 뇌신경세포의 세포체가 밀집된 곳이다. 즉, 뇌세포의 수가 적으면 전두엽의 실행기능과 통합, 분석, 문제해결, 감정조절, 행동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사람들 보다 어려울 수 있다. 측두엽(temporal cortex), 뇌섬엽(insula)의 기능이 떨어지고, 분노감정을 조절하고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amygdala)가 과활성화되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뇌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 정보를 왜곡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뇌기능 손상의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영향이 크고, 환경적 영향에서 부모의 학대와 폭력, 애착의 결여 등으로 폭력관련 뇌신경회로가 강화된다. 그리고, 폭력 관련 스냅스의 강화는 폭력, 공격상황에서 쉽게 발화된다. 이 경우 폭력성을 억제시키기 위해 새로운 친사회적 시냅스를 형성하고 강화하며, 기존 폭력관련 시냅스를 소멸시키고, 친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반복적 훈련을 통해 강화시켜야 한다.

외국에서는 위와 같은 추론의 증거가 될 만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인지행동치료가 폭력범죄자의 전두엽, 뇌섬엽, 측두엽, 편도체의 구조와 기능에 좋은 변화를 가져 온다(Gerdes et al., 2011; Vaske et al., 2011; Mullins, 2011). 뇌신경과학의 발달로 폭력 재범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냅스의 생성 및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폭력 비행 청소년들에게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뇌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충동성이나 분노감정의 조절과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공격적으로 인식하는 인지 왜곡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인지결핍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뇌구조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하고 스스로 자기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폭력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폭력으로 대처하게 되어 재범에 이르는 연결고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3절 비행청소년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위한 기술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비자발적 아동·청소년의 동기를 높인다. 둘째, 협력적 경험주의와 안내된 발견은 생산적 치료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갖는 왜곡된 신념에 무조건적 긍정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McAdam, 1986). 치료자의 이론이나 판단보다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Back et al, 1979). 특히 통제 문제에 민감한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드러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는 것은 주변의 정보를 탐색하도록 돕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Friedberg, McClure, 2002). 셋째, 인지행동치료에서 사고기록지와 행동 실험, 과제(활동) 등은 부담스럽고 저항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중도 탈락을 하게 만든다. 심리교육을 통해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정보 전달과 구조화를 하고, 근거와 효과를 제시할 경우 신뢰와 기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Friedberg et al, 1998). 넷째, 아동·청소년이 치료에 대한 만족, 불만족을 표현하는 피드백은 치료를 촉진시키고(Back et al, 1979), 수준에 맞는 활동과 개방형 질문 사용이 도움이 된다(Friedberg et al, 2004). 다섯째, 인지행동치료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치료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이 많지만(Cheon et al, 2000; Ha et al, 2004),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 방법이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Friedberg et al, 1998). 따라서 연령이나 언어, 조망, 추리 능력 등의 여러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Kendall, Choudhury, 2003). 즉, 비자발적인 아동·청소년의 반응을 늘리기 위해 창의적이고 기발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유주현, 민병배, 2010).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은 통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권위자에 대한 반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율성과 개별성을 발달시키도록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Miller, Rollnick, 2002).

위와 같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안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과 적극적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권해수, 윤일홍(2018)의 연구에서는 폭력비행으로 수강명령이수 명령을 받고 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비행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단일 사전사후검사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정민, 박준희, 한경은(2007)의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 중 공격성과 우울이 높은 여학생을 선별하여 실험집단에 20명, 통제집단에 18명을 할당하였으며, 주 1회 90분씩 12회기 실시하였다.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양적 효과검증과 자동적사고 기록지를 기록하여 사고내용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양승남(2003)의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에 10명, 통제집단에 10명을 할당하였으며, 3일 20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양적 분석과 소감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성은주(2005)의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1~3회 처분을 받고 있는 14~19세의 폭력, 절도 재범 청소년 대상으로 실험집단에 8명, 통제 집단에 8

명 할당하여 주2회 90분씩 8회기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사전-사후 양적 분석을 통해 공격성과 충동성의 유의미한 감소가 보고되었지만,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실험-통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민성길, 이호분, 육기환, 남궁희승, 류경희(1999)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의뢰된 중학교 2학년 남, 녀 학생들을 실험 집단 27명, 통제집단 20명으로 할당하고, 주 2회 100분 동안 15회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기 기술형 비행척도와 폭력행동척도 사전-사후 양적인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험군에 대한 교사용 문제행동 척도와 문제행동 적발빈도를 실시하였으나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앞에서 제시한 비행청소년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선행 연구를 살펴보다라도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양적인 효과 분석이 대부분이며, 질적인 내용 분석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소수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성과 충동성의 감소와 분노조절력의 향상, 인지왜곡의 감소와 폭력신념의 긍정적 변화,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자아 존중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과정상에서 제시한 연구는 적었다. 또한 양적인 결과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유의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는 사례들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정량적 분석으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프로그램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만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 각자가 모두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서 똑 같은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지만 정량적 분석에서는 이 같은 경험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양적인 효과성 분석의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정량적인 자료를 복합분석단위로 포함한 질적사례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1절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질적 사례연구에 있어서 대표적 학자인 Yin(2009)은 사례연구의 기술적 속성을 제시하며 실생활 속의 현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주요 정황상 조건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하였다. Bromley(1986)는 특정한 실체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사례연구라고 하였다. 여기서 실제란 대상, 사건, 사람, 상태, 상황, 과정 등을 말한다. Stake(1994)는 사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계가 있고 특이성을 지닌 통합된 체계’라고 하였다. 사례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개인, 조직, 학교, 프로그램, 활동, 협력관계와 같은 구체적 주제와 공동체, 관계, 의사결정, 프로젝트, 서비스 등의 추상적인 주제로 구분된다(Yin, 2009). 이처럼 사례연구는 경계가 있는 통합된 체계로서 개인내지는 집단의 특이성을 이해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경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강진숙, 2016).

Stake(1995)는 사례연구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질적 사례연구는 사회적 이슈나 관심이 되는 특정 사례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피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며, 도구적 사례연구는 특정 문제나 이슈를 규명하기 위한 일종의 예시로서 사례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례 자체가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연구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집합적 사례연구는 많은 사례들을 동시에 연구하여 각각의 개별 사례들 간의 공통된 특징들이나 현상, 일반적 상황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에는 일반적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이 있으며, 사례 내 분석은 개별사례들을 순서대로 제시하며 주제를 찾아 분석하고, 사례 간 분석에서는 자료를 읽으면서 사례들 간의 주제를 재검토하면서 중심개념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Yin(2005)은 사례 하나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개별 단위의 사례를 소개하는 단일 사례(single-case)연구와 두 개 이상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다중 사례(multiple-case)연구로 구분하였다.

인지행동치료 기반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의 변화와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사례연구는 사례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므로 도구적 사례연구에 포함되며, 하나의 프로그램 참여라

는 단일 사례 연구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 개별 사례 각각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면서 사례 내 분석하고, 사례들 간의 중심 주제를 도출하여 통합하는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소재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폭력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법원 처분 전 교육이수 명령 대상자들이며, 참여 청소년들의 범죄 내용은 대부분 폭력이었다.

제3절 자료수집 방법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진행되는 처분 전 교육은 5일(35시간) 간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교시 40분으로 하루 7교시로 시간표가 정해져있다. 총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1회차는 2019년 4월 22일부터 26일 까지 5일동안 35회기, 2회차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20회기로 진행되었다. 2회차 진행한 청소년들은 본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을 2일 더 받았으며, 5일을 마친 후 소감문을 제출하였다.

1. 프로그램 사전·사후 질문지

집단프로그램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하였으며, 질적인 분석 결과에 포함시켜 결과를 제시하고 통합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한 정량적인 효과측정을 위해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청소년 부적응적 사고척도, 공격성척도, 합리적 문제해결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사고기록지 인터뷰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상황이 감정과 행동(신체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에 대한 생각(사고)이 감정, 행동(신체반응)을 유발한다고 말한다(Beck, 2017).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인지의 변화를 위해 5칸 기법이라고 하는 사고기록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첫 번째 칸에는 부정적 정서나 행동, 신체 반응을 유발한 사건을 적고, 두 번째 칸에는 반응(정서)의 종류와 강도를 기록한다. 세 번째 칸에는 그 때 스치는 생각을 적게 되는데, 이 때 떠오른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하며, 부정적 반응을 유발한 사고는 대부분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서 인지왜곡과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가 있다. 사고의 처리 과정과 사고의 내용에 대해 안내된 발견(guided discovery)을 위한 질문들을 하여 대안반응을 탐색한 후 네 번째 칸에는 대안적 반응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반응을 생각해 낸 후 정서적 반응의 종류와 강도를 기록하도록 한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찾고 대안적 반응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부적응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인지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사고기록지를 적는 과제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재구성하고 인지 결핍을 해소하게 되는 인지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처리의 과정을 종이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혼자서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폭력 비행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작업이 쉽지 않으며, 그러한 과정을 혼자서는 더욱 찾아가기 힘들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상담심리전문가 1인의 지도를 받아 인터뷰 질문은 백의 인지행동치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부정적 반응을 유발한 사건은 폭력 비행청소년들의 자신의 처분 전 사건으로 정하였다. 자신의 폭력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여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변화와 감정, 대안반응을 측정하고 녹취하였다.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사용한 사고기록지 인터뷰는 프로그램 진행 중 매일 연구참여자의 폭력 사건에 대한 사고기록지 질문을 통하여 인터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1) 참여자에게 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도록(심상) 하고,
- 2) 떠올렸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반응 내용과 강도를 척도질문을 통해 탐색한다.
- 3)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스치는 생각(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며
- 4) 그 폭력 사건이 일어난 또 다른 설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재귀인을 해볼 수 있도록 촉진하고,
- 5) 그 상황을 도움이 되는 대안적 반응으로 연결시키는 질문을 하게 된다.
- 6) 마지막으로 대안적 반응까지 진술한 후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반응 내용과 강

도를 점수로 확인한다.

매일 이러한 과정을 5일 동안 반복 인터뷰를 하게 되며, 보조 리더 3~4명이 대상자들과 최대한 협력적 치료관계 형성을 통해 편안한 상태로 실행하게 된다. 인터뷰를 통한 프로그램 과정상 효과성 측정이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 훈련을 통해 인지행동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본격적인 인지행동치료 통합프로그램 개입 전 기초선을 위해 첫 번째 인터뷰를 실시하고, 하루 프로그램을 마치기 10분 전 5일 동안 매일, 총 6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한다.

3. 기타 질적 자료 수집

인지행동치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집단 활동지 및 결과물을 수집하고, 진행자와 보조진행자의 행동 및 면담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직 후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감문을 수집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6개월 후 참여자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양한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4절 인지행동치료 기반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본 인지행동치료에 기반 한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들 중에서 인지행동치료의 다양한 영역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폭력 비행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과 교구를 활용한 권혜수, 윤일홍(2018)이 개발한 청소년폭력 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기 개발된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식 구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행 순서와 회기별 세부 내용,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활동 내용과 교구를 활용하여 폭력 비행청소년의 호기심과 집중을 유발할 수 있도록 상담전문가 1인과 석사 보조지도자 4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표 1>에는 인지행동치료 기반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 1>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회기	제 목	목 표	주요내용	비고
1	폭력예방 프로그램OT	프로그램 안내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안내 ·사전검사 진행	1일차 30분
		사고기록지 인터뷰 (기저선)		10분
2	자기 이해	자기 인식 증진 (집단 친밀감 향상)	·집단 응집력 키우기 ·자기 탐색 물렛 게임을 통한 자기 이해. ·타인에 대한 관심 증진	80분
3	폭력 행동 이해	폭력에 대한 이득/손실 인식하기	·폭력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적혀있는 쟁가를 이용하여 게임진행 ·폭력행동 이득/손실 생각하기	80분 (오후)
4	변화 동기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 동기 증진	·변화 동기 척도 카드를 이용한 활동 ·변화에 대한 척도 질문에 대해 말이 아닌 바닥에 놓여진 1-10까지 척도 카드를 옮겨가며 대답한다.	30분
		사고기록지 인터뷰 I		10분
5	폭력 신념과 인지 재구조화	같은 상황 다른 결과 : 상황과 결과 사이에 생각이 있음을 인식하기	·고깔콘 게임 ·같은 상황에서 결과가 다른 2가지 영상 시청. ·같은 상황 다른 결과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토론하기	2일차 80분 (오전)
		폭력 빙고 : 상황과 폭력 행동 사이의 생각 찾기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빙고판에 적는다. ·적힌 상황에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는지 덧 붙인다 ·모둠으로 빙고게임을 한다.	40분
		내 마음의 여섯 가지 색안경	·폭력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인지 왜곡 이해 - 인지 왜곡에 대한 심리 교육과 이해를 위한 사례제시	40분

6	건강한 생각만들기	통제주사위 게임 : 당위적 사고에 도전하기	· 주사위 게임을 통한 당위적 사고에 유연성 기르기	40분 (오후)
		긴가민가 보고서 :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도전하기	· 사실이라고 믿는 증거/ 사실이 아니 라고 의심하는 증거 찾기	40분
		센터필드 게임 : 이분법적 사고에 도전하기	· 센터필드 활동지의 양 끝에 친구의 속성과 적의 속성을 찾아서 적는다. 친구들과 자신은 그러한 속성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센터필드에 위치시켜본다.	30분
	사고기록지 인터뷰 II			10분
7	친사회적 기술 I	그림보고 사실말하기	· 사실을 말하기 · 1, 2, 3단계 그림보고 사실로 말하기	3일차 40분 (오전)
		사실/판단 퀴즈	· PPT에 제시된 문장을 읽고 사실과 판단/평가 구분하기 · 판단하는 문장을 사실로 바꿔보기	40분
		폭력상황에서 나의 숨은 욕구 찾기	· 제시된 문장에서 숨은 욕구 찾기 · 나의 폭력 상황을 사실로 기술하기 · 나의 욕구를 찾고, 표현하기	80분
8	친사회적 기술 II	비폭력적 대화법	·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기 ·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 각하기.	40분 (오후)
		비폭력적 대화 역할극	· 조 안에서 짝을 지어 역할연습하기.	40분
9	문제해결능력	중국 손가락 트랩	· 중국 손가락 트랩 놀이 후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경험 나누기	30분
		사고기록지 인터뷰 III		
10	감정과 친해지기 I	진짜 감정 찾기 진짜 감정 표현 상 황극	· 진짜 감정(1차 감정) 찾기 · 동영상 시청 후 분노감정(2차 감정) 이전 1차 감정 찾기 · 진짜 감정(1차 감정)해결 역할극	4일차 120분 (오전)

11	감정과 친해지기 II	폭력 상황에서 나의 감정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상황이 발생하기 전, 폭력 상황 중, 폭력 상황이 끝난 후 느끼는 감정 찾기 ·감정카드(A4)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40분
12	분노 조절	화났을 때 내 몸은?	·부정적 감정(분노, 화, 짜증)에 대한 신체(전신)의 반응 찾고 나누기.	110분 (오후)
		고통 감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 상황에서 감각 이완 및 자신만의 이완방법 찾기 ·나만의 분노 다스리는 방법 찾기 	
		자기 독백 카드	·자기독백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self talk를 찾기	
사고기록지 인터뷰 IV				10분
13	친사회적 기술	관점 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 시청 후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해 관점취하기를 통해 인지적 공감 연습하기 	5일차 40분 (오전)
		학교폭력 모의 상황극	·학교폭력 모의 상황극(모의 재판) 연출하고 시연하기	80분
14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	문제해결 보드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주로 겪게 되는 문제 상황 해결 보드게임 ·5일 동안 배운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문제 상황 해결하기 	40분
15	강점 피드백	자신과 타인의 강점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점카드를 활용하여 강점 피드백 주고받기 ·자존감 증진 	40분 (오후)
16	변화 확인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확인 인식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와 다짐의 시간 나누기 ·참여 중 변화 떠올리기 	오후 30분
		사고기록지 인터뷰 V		
17	다시 일상으로	마무리	소감문 작성 및 사후검사	40분

제5절 연구자의 준비

1. 사전모임

본 프로그램의 주 진행자인 상담심리전문가와 석사 재학 중인 4명의 보조 리더(연구자 포함)들이 7회에 걸쳐 프로그램 재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모임을 가졌다. 사전모임에서 인지행동치료 통합 프로그램을 비자발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청소년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거쳤다. 연구 대상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 왜곡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폭력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 시 유의할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인지 재구조화를 위한 대안적 반응 탐색에 있어서도 상호 피해자라는 청소년들의 입장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고의 확장에 이를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루었다. 대상자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활동과 보조 활동 도구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제작하였으며, 폭력 가해 비행청소년들이 보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황 제시 후 대처반응을 찾기 위해 회의를 거듭하였다.

제6절 자료분석

인지행동치료기반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과정상 수집한 주관적 자료들을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은 처분 전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분노표현과 부적응적사고, 공격성,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변화를 사전-사후 검사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하였고, 이를 위해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한 달 간격을 두고 2회 운영되었으며 4월 진행된 1회차 실험집단에는 5명이 5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 최종 참여하였고, 5월 진행된 2회차 실험집단에는 9명이 참여하였으나 사전검사 미실시와 검사 불성실로 인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참여자가 최종 12명으로 모집단의 수가 정규성을 가

정하지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증을 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활동지와 결과물, 보조리더의 행동 및 면담일지, 사고기록지 인터뷰, 참여자의 프로그램 소감문 등의 주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의 분노조절과 공격성, 부적응적 사고,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켜 재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실제로 어떤 요인으로 그러한 효과를 주었는지 다양한 질적인 주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적 분석만으로는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없는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참여 과정에서 변화의 수준, 의미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참여 실험집단의 다양한 변화 측면을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의 반응내용과 활동결과물을 수집하여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였으며, 사고기록지 인터뷰와 집단의 지도자의 행동 및 면담일지, 전화 인터뷰 자료와 소감문을 전사하여 질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Lincoln과 Cuba(1985)가 단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단위화는 범주들을 정의할 기초로 쓰이게 될 정보의 단위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사한 자료들을 단위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고, 전사해놓은 자료의 여백에 의미를 기록하고, 프로그램 과정의 활동과 참여 태도 관찰을 기록하여, 프로그램 참여경험에서 의미있는 단위로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시계열적 변화가 중요하기에 시계열적 하위 범주와 4개의 핵심주제를 도출하였고, 소감문은 의미 있는 진술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주제별로 의미를 분석하였다. 인지행동치료기반 폭력 예방 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5가지 핵심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 4 장 분석결과

G광역시 소재 비행예방센터에서 처분 전 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의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처분 전 교육이란 소년 재판 계류 중인 비행 청소년에게 소년법 제 18조(임시조치) 1항에 따라 소년 재판 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 꿈키움 센터)에서 가정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5일간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1회차 프로그램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6명이 참여하였으나 도중에 1명이 퇴소하여 총 5명이 참여하였다. 2회차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2019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만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2일 동안은 비행예방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사전검사 미실시와 불성실한 작성으로 인해 총 7명만을 대상으로 양적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처분 전 교육 대상자들은 자신의 비행에 대한 처분을 받기 전 교육이수를 명령 받고, 교육 참여 태도가 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처분이 이루어지고, 비행에 대한 처분의 시기나 처분의 수준이 청소년 개인별로 서로 상이하여 1달 후 사후 평가 실시하기가 어려운 특수 대상이었다.

제1절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프로그램은 2019년 4월에 5일, 2019년 5월에 3일 동안 G광역시 소재의 청소년꿈키움센터에 처분 전 교육대상으로 의뢰된 폭력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회차 프로그램은 5일(40시간) 과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2회차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지행동 부분만으로 구성하여 3일(20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구성하였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두 집단을 통합하여 양적인 효과 검증을 하였다.

1회차 집단은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범죄소년 100%)들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나이는 15.2세, 중학생 4명, 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행청소년을 포함하여 총 5명이었다. 비행명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그중 공동감금 1명, 공동폭행 1명, 상해 및 공동상해 3명 이었다.

2회차 집단은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며 평균나이는 15.3세로 1회차 집단과 비슷하지만 집단 구성원 중 촉법소년 비율이 42.9%를 차지했다.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이었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그중 공동주거침입 1명, 공동폭행 3명, 상해 및 공동상해 3명 이었다. 3명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공범관계이고, 2명의 여고생이 공범관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2명이 공범관계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표 2>에서는 1, 2차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폭력비행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2>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 류		1회차 (4월 참여자) n=5 (%)	2회차 (5월 참여자) n=7 (%)	
연 령	13-15세	3(60.0)	3(42.9)	
	16-18세	2(40.0)	4(51.7)	
	촉법소년(만10세~13세)	0(0.0)	3(42.9)	
	범죄소년(만14세~18세)	5(100.0)	4(51.7)	
성 별	남	2(40.0)	4(51.7)	
	여	3(60.0)	3(42.9)	
학 력	중학교 재학	3(60.0)	3(42.9)	
	고등학교 재학	1(20.0)	4(51.7)	
	학교 밖(졸업)	1(20.0)	0(0.0)	
비행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0(0.0)	1(14.3)
		공동폭행	1(20.0)	3(42.9)
		공동상해	2(40.0)	2(28.6)
		공동감금	1(20.0)	0(0.0)
	상해	1(20.0)	1(14.3)	

제2절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결과

1. 프로그램 회기 내용분석

프로그램 진행 회기별로 회기목표에 따른 집단 활동을 통해 수집한 청소년들의 활동지와 활동 결과물, 회기 내에서 참여자들의 활동내용, 집단지도자들의 면담 및 행동 관찰 일지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회기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1) 1일차

처분 전 교육 대상자들에게 비행예방센터 직원(담당선생님)의 규칙 안내와 위반 시 받게 될 불이익(벌점과 퇴출)에 대한 사전 교육은 청소년들을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긴장시켰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어떻게 지내지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무섭고 창피했다.”

“ 많이 떨리고, 이곳에 온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편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다.

“이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교육을 받으라니...”

“너무 낯설고 재미도 없는데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

“그 전날 저녁부터 짜증이 나 있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여기 와서 몇 시간씩 있어야 하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1-1, 2. 자기이해

조별로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로 한사람씩 물렛을 돌려 해당하는 물렛질문에 30초 이상 대답하고, 양옆에 있는 조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여 서로에 대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질문과 활동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활동에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렛을 돌리고 30초 이상 말하는 규칙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길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고, 물렛 질문을 받은 사람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무조건 1개 이상 질문을 해야 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집중

해서 듣는 모습을 보였다. (Q. 최근에 화가 났던 일은?) 최근에 화가 났던 일은 없다고 해서 기분 나빴던 일을 바꿔 질문하자, ‘어학원 영어선생님이 상황을 착각해서 머리끄덩이를 잡았다.’는 얘기를 했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관심을 보였고, 그 선생님의 닉네임을 묻기도 했다. 한 친구는 그 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은지 묻기도 했었다. (Q. 나에게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호도할 거다.’, ‘1년 뒤 죽든 어쨌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거다.’, 또 다른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다.’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가겠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평소에는 학교와 학원 다니느라고 힘들었다.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다.’, ‘가족, 친척과 같이 살고 싶다. 왜냐하면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을 많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1-3, 4. 폭력 이해

젠가에 적힌 질문을 통해 그때의 자신의 폭력 상황과 생각, 행동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몇몇 친구들은 같은 조의 참여자들에게 폭력과 관련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지만, 몇몇 조원들은 젠가만을 뽑으려고 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상담자가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참여자들의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고자 추가 질문을 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율하고자 하였다. 젠가가 두세 번 무너지고 나서 중학생들은 사탕이 나오는 번호를 기억하고 그 번호를 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원들끼리 폭력행동을 통해 얻게 된 이득과 반대로 자신에게 손실이 되었던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자신들의 폭력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보고 직접 이득과 손실을 적어봄으로써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에도 이득이 있고, 심지어 많았다. 이득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기억에 남았다. 이득 때문에 폭력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2) 2일차

2-1. 폭력 신념과 인지 재구조화

두 가지 동영상 시청 후, 조원들끼리 어떠한 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다가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다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색지에 적어보았다.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열등감 때문에” 등의 이유로 B를 때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때 팀 지도자가 상황과 결과 사이에 비합리적 신념이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폭력행동에 관련된 상황들 혹은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나서 폭력을 시도할 뻔한 상황들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칸을 모두 채우는데 어려워할 때 팀 지도자들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며 찾아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칸을 채우도록 하였다. 칸을 다 채운 후, 조별로 빙고 게임을 할 때는 우선권을 가진 조가 적은 빙고 중 하나의 칸을 선정하여 먼저 생각과 그 생각과 관련된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 그 생각과 비슷한 조가 있으면 빙고를 외쳤고, 생각이 같지만 다른 상황인 경우 그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비슷하면 인정을 해주면서 조원들끼리 서로 응집력이 생겼고, 비슷한 생각과 경험으로 인해 폭력 상황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PPT를 통하여 “내 마음의 6가지 색안경”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들은 참여자들은 다시 전 시간에 했던 빙고 판을 가지고 어떠한 색안경들이 있었는지 6가지 색의 포스트잇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하였다. 하나의 예시에 한 가지 색만 붙이기도 하였고, 두 가지 색을 붙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PPT를 계속 켜두었던 점이 참여자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중학생들도 예시를 보면서 쉽게 색안경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2-2. 건강한 생각 만들기

참여자들은 주사위와 칩을 보자 흥미를 가졌고, 숫자가 틀릴 때 팀 진행 선생님에게 칩을 줄 때 불안감도 느끼고, 또 맞출 때는 흥분감도 느끼면서 재미있어 하였다. 참여

자들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신이 예측했던 숫자와 잘 맞지 않고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게 되었다. 실제 상황에서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경우가 더 많음을 알게 해주었으며, 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몇 번 맞출 수 있을지 먼저 예상하였다.

3번 예상하고 2번 맞춘 후 ‘재미있었다.’, 7번 예상하고 3번 맞춘 후 ‘너무 말도 안 되게 예상을 했었다.’, 10번 예상하고 2번 맞춘 후 ‘별 생각이 안 든다.’, 2번 예상하고 0번 맞춘 후 ‘재미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계속 얽매어 있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했다.

프로그램 활동 도중에 두 명의 참여자가 규칙을 어겨 중도탈락이 되면서 분위기가 흐트러졌고, 참여자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한 조에서 두 명이 탈락하여, 그 조 안에서 더욱더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 사실이라고 믿는 증거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증거를 찾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생각들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색안경에 사실일 수 있는 증거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는 경험을 재미있는 게임처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의 근거를 찾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3) 3일차

3-1. 친사회적 기술 I (사실/판단)

PPT를 통해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는 위명업으로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끼는데 도움을 주었다. PPT화면에서 제시된 문장으로 사실과 판단을 구별할 수 있게 충분한 연습이 되었고, 판단/평가의 문장을 사실로 바꾸도록 함으로써 생각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활동하는 도중에 계속 타이머로 화면이 먼저 전환되어 정답이 드러나면서, 중학생들은 정답을 기억해서 맞히는 놀이가 되어버린 듯 했다. 그럼에도 판단/평가가 들어간 문장을 쉽게 찾았다. 하지만 사실로 바꾸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듯 했다.

활동지를 통해 상황에서 판단/평가를 구별해서 괄호로 묶어보고, 판단/평가를 뺀 내용을 사실로 적어 보도록 안내 했다. 판단/평가를 하는 이유에는 나의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얻고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좌절된 욕구는 자칫 폭력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활동지 예시에서 판단/평가를 골라 괄호로 묶는 것은 잘 찾지만, 욕구를 찾는 것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청소년 개개인 마다 다른 욕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욕구를 감정과 혼동하고 ‘화’라는 감정 밑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찾는 것을 어려워했다.

3-2. 친사회적 기술Ⅱ (비폭력적 대화하기)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의 폭력상황에 대해 어떤 욕구가 숨겨져 있었는지, 자신의 숨은 욕구를 찾는데 어려워하였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으며, 활동에 집중을 못하다보니 활동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폭력상황이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상황을 적도록 한 후, 판단/평가를 빼고 사실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주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하였다.

(상황) 다른 친구랑 같이 떠들었는데 나만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

(사실) 다른 친구랑 같이 말했는데, 나한테만 선생님이 큰소리를 치셨다.

(욕구) 사과 받고 싶다.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같이 떠들었다고 말하면 좋겠다.

(나는?) 그 애한테 가서 진심으로 말한다. 그리고 평소에 그 친구에게 잘 해준다.

3-3. 문제해결능력 (중국 손가락 트랩)

중국손가락트랩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였다. 부수지 않고 손가락을 빼내야 한다는 규칙에 한 참여자는 손가락이 갖혀서 빼야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다가, 방법을 찾은 후 살살 돌리고 달래가며 빼야한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이를 보더니 ‘문제 상황이 생기면 (두 손가락처럼) 배려해서 잘 풀어 가야 한다. 만약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하고 상대는 사과를 안 하려고 할 때 이 둘이 팽팽하면 (손가락 트랩처럼)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를 해서 느슨하게 만들어보아야 한다.’라는

느낀 점을 말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며,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서로 생각하고, 기억나지 않은 것은 서로에게 알려주며 마인드맵을 채워넣었다. 자신이 어떻게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토의하며 3일차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4) 4일차

4-1. 감정과 친해지기 I (진짜 감정-1차 감정)

진짜 감정 찾기 영상을 시청하면서 참여자들이 영상 속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영상 속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상황을 떠올라서 더 집중이 잘 되었다고 하였다. 일차 감정을 찾는 동안 영상 속의 주인공뿐 만 아니라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감정까지도 세심하게 찾아내고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이유까지 잘 설명하였다. 한 참여자는 두 번째 영상(휴대폰이 깨지는)과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자신이 오리려 영상 속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해당 활동에 대해 '짜증난다.'라고 말했던 기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한 참여자는 자신이 억울한 것도 서운한 것도 다 짜증난다고 표현했던 것 같다 라며 성찰 하였다. 이후 역할극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두 모둠이 모두 부모님과 의 갈등 상황이 가장 자신과 가깝다고 느껴 이를 다루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역할극 대본을 만들면서 어제 배운 비폭력 대화의 요소들(위협적이지 않은 태도, 차분한 목소리,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활용해야한다며 대본을 짤 것을 주장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엄마의 일차 감정을 찾고 표현해보면서 엄마의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며, 그런데 먼저 큰 소리로 하면 자신도 좋게 말이 안 나가니까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하였다.

4-2. 감정과 친해지기 I (폭력과 관련된 나의 감정)

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폭력 전, 중, 후, 지금 여기의 기분을 종이에 나타내보는 활동을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폭력 행사 전에는 즐겁고, 신나

는 기분이었다가 지금 보면 별 것도 아닌 일에 폭력을 행사한 뒤에는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시험기간인데 공부를 못해서 불안하고, 후회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였다. 감정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난 후에 ‘교육이 피곤해서 오기 싫고 짜증났는데, 지금은 후회스러운 기분이 더 많이 든다’, ‘신나는 기분을 망친 것 같아 후회된다.’고 말하였다.

4-3. 분노조절 (고통감내)

오후시간에는 화가 났던 적을 상상하며 신체감각을 찾아보았다. 한 모듬은 중간에 탈락된 참여자를 그리워하며 ‘그의 몫까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그 참여자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까지 떠올리며 분노 상황에서 신체 감각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감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까지 개방하고, 자신이 가장 자주 느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뚜렷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 참여자는 ‘화가 나면 신호등처럼 신호가 오는구나.’라고 말하였다.

실제 분노 상황에서 분노를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경험해보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자신에게 알맞도록 변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얼음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던 참여자는 얼음은 평소에 잘 못 구하니깐(필요할 때 안 갖고 있으니까) 얼음 대신 물티슈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손톱 네일 경계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만지는 것을 생각해내었으며, 체험해보았던 방법 중에 청각을 활용한 방법이 없어서 청각적인 것을 찾아보겠다고 나서는 참여자도 있었다.

자신만의 셀프톡을 만들어보는 활동에서도 셀프톡 내용에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그 상황의 ‘이득과 손실을 생각해보자’며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만들거나, 화장실에서 봤던 글자 중 인상 깊었던 것을 생각해내며 셀프톡으로 변형시켜보는 등(나중에는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야.) 다양하게 자신만의 셀프톡을 만들고, 되뇌어보는 연습을 하였다.

5) 5일차

5-1. 인지적 공감 (관점취하기)

동영상을 통하여 영상 속 인물에 대한 관점과 그 주위 인물들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폭력 상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가해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아빠, 엄마, 선생님,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감정들을 경험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할 것 같은지, 왜 그럴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는 처음에 사건을 듣고, 걱정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화가 났을 것 같다. 엄마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당황스럽고, 민채(가해자)에게 화가 났을 것 같고, 속상했을 것 같다. 선생님은 걱정을 하고, 중립을 지켜야 했을 것 같다. 또한, 사건을 좋게 끝내고 싶은 맘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다. 두 친구의 문제(사이버 폭력)로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됨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활동은 관점취하기라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길러보는 시간이 되었다.

5-2. 문제해결보드게임

이후 실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보도록 문제해결 보드게임을 진행하였다. 한 참여자는 진짜 감정을 찾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때, 벽에 붙여둔 활동자료들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한 가지 감정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로 견제하거나 과하게 경쟁적이기 보다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조력하고, 함께 하나씩 대답하여 너도 코인 하나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자는 마음으로 보다 풍부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며 게임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3. 강점 피드백

오후시간에는 잠을 깨기 위한 스트레칭 트리를 진행 후 강점카드를 통해 5일 동안 지켜본 서로의 모습에서 강점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였다. 서로 오글거린다며 웃었지만 어느 때보다 더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서로의 강점을 말해준과 동시에 활동에 임했던 모습을 전달해주며 5일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였다. 한 참여자는 강점을 이렇게 카드로 주니 내 것이 되는 것 같다며, 내가 아니라 남이나의 모습에서 강점인 부분을 짚어주는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일 좋았다는 소감을 말하였다. 이제까지 자신은 자기 강점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또 다른 참여자는 강점들을 엮어 문장으로 만들어 발표해보기도

하였다.

“나는 나의 <자기개발>을 위해 <끈기>있게 수업에 참여하고, <성실>하게 임하였다. <결단력>있는 대담으로 <흥이 넘치는>사람입니다.”

“나는 수업에 <경청>을 잘하여 <지혜로운>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수업을 <재치>있게 하면서 <이타심>을 얻었고, 수업활동을 하면서 <신체건강>이 더 좋아진 사람입니다.”

5-4. 변화확인 인터뷰

마지막에는 변화확인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 프로그램이 나의 재범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처음보다 얼마정도 마음가짐이 변화된 것 같은지 등을 물어보았다. 처음 억울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 참여자도 자신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종결됨을 안내하고, 사후검사 실시와 칭찬카드 시상을 하며 5일차 프로그램의 막을 내렸다.

Q.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처음에는 2점이었는데 지금은 6이라고 한 친구는 게임이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처음은 몇 점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재 7점이라고 하였으며 모르는 걸 배워서 7점을 줬다고 하였다.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 안에서 효과를 내기위해 재미라는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할 것 같다.

Q.나는 이 활동에 얼마나 참여를 했나?

둘째, 셋째 날 빼고는 이후에 6~7시간 토론을 했으며 잘 참여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10점을 줬다. 교육 도중에 담당교사에게 지적을 받은 것 빼고는 잘했다라고 말하며 7점을 준 친구도 있었다. 이렇듯 스스로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Q.이 프로그램이 내 재범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이전 수강교육포함 이번이 3번째예요. 이게 더 유익했고, 이전 프로그램 보다는 저에 대해 좀 알아본 것 같아서 5점이에요.”

“화를 참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화를 참는지. 멀티슈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요. 그리고 나의 강점이 뭔지 알게 됐어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다른 교육에 비해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보다 활동적이고 참여적이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인지행동치료 기반 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많은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하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참여적 토론식 교육이 힘들지만 몸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Q.다시 여기 안 올 수 있다?

이 질문에 1초도 쉬지 않고 대답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의 도발에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 청소년은 자신이 이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대처방안을 확실히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해 하는 모습이 확신에 차 있었으며 “당연히 10점이죠.” 하고 하였다

Q.처음보다 얼마정도 (마음가짐)변화 된 것 같다?

“7점요. 처음 인터뷰할 때는 계속 빠졌는데, 지금은 후회되고, 무시할 걸이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2점 이었고 지금은 5점요. 다시 그 사건(인터뷰) 떠올리라고 할 때. 죄책감이 생겼어요.”

프로그램 초기 인터뷰 활동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정도로 감정 표현을 말로써 표출하는 모습은 건강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죄책감이란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요즘 비행 청소년들의 흉포화된 범죄를 보더라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3회기부터 후회의 감정과 죄책감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2. 사고기록지 인터뷰 변화 분석

1) 나의 폭력사건 경험과 감정, 생각, 다른 결과 (사례 내 분석)

사고기록지 인터뷰에 나타난 프로그램 참여 비행청소년들의 5일 간의 감정변화를 비슷한 감정끼리 묶어서 총 4가지로 구분하고 표로 제시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도식화 하였다. 연구자는 5명의 청소년들이 5일간의 인지행동치료에 기반 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감정, 생각, 폭력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사례연구를 하였다.

(A양) 나는 폭력(비행명)이 아니예요, 초범이라 괜찮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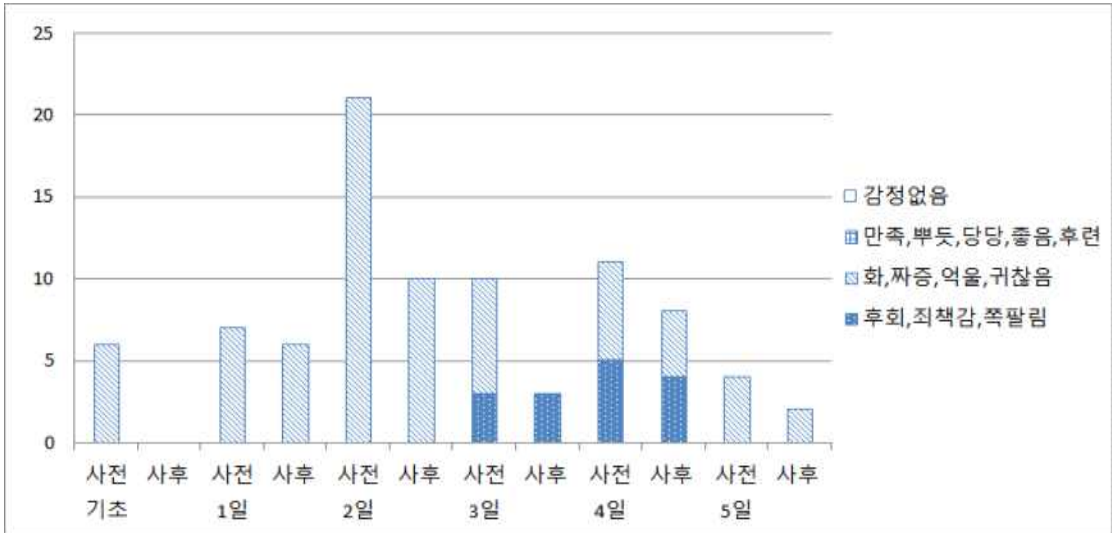
<표 3>과 <그림 1>에는 A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 상에서 감정의 변화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3> A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를 통한 감정 변화

A양 15세	기초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후회, 죄책감, 쪽팔림							후회3	후회3	후회5	후회4		
화, 짜증, 억울함, 귀찮음	억울함7	억울함0	짜증7	짜증6	짜증7, 화7, 귀찮음7	짜증5, 화5,	억울함3		짜증6	짜증4	억울함4	억울함2
만족, 뿌듯, 당당, 좋음												
감정없음												

A양은 처음부터 자신은 폭력이 아니라 감금으로 왔으며, 왜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였고, 이 교육을 받아야만 낮은 처분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왕 해야 하니까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았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인 억울함과 짜증, 귀찮음의 정서를 꾸준히 보였으나, 3일차 프로그램 이후부터 후회의 정서가 나타나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인터뷰 시에 사전의 감정 수준은 사후 낮아지는 치료적 효과를 보였다.



<그림 1> A양의 감정 변화 그래프

자신의 폭력 사건을 떠올리고 인터뷰를 할 때 기저선에서 저항하며 사후 감정을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일차** 사전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컸으며, 다행히 인터뷰를 통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으로 인지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인지재구조화와 건강한 생각(대안적 사고)을 위해 평소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심리교육을 통해 인지왜곡을 알고 폭력을 일으키게 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는 활동을 조원들과 해결해야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다. **3일차** 프로그램 후 사전에 후회의 감정이 등장했으며, 사후에는 억울함이 사라지고 후회의 감정이 남았다.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사실로 보는 활동과 폭력 상황에서 좌절된 욕구를 탐색하고 건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기에 버거워했던 것 같다. **4일차**에도 후회의 감정이 전날보다 더 강하게 등장했으며, 짜증도 6점으로 높아졌다. 이는 산만한 행동에 대해 지도자의 제지가 통제로 느껴졌던 것 같다. 다행히 인터뷰과정을 통해 후회와 짜증의 감정이 낮아졌다. **5일차**에는 사전에 억울함이 4점이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된 사건과 연관된 친구와 지금은 화해를 한 상태지만 자신만 여기 와서 5일간 교육을 받았던 것에 대해 이해받고 싶은 맘이 올라왔던 것 같다. 다행히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의 원인이 첫날에는 “차털이를 한 친구가 몰고 온 차를 태워서”, “태우라고 해서 태웠다.”에서 **3일차** “내가 00이를 차에 태웠다.”라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답을 하였다. 이는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내가 (차 태우는 걸)강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4일차**는 “내가 친구 말을 들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친구가 시켜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이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5일차**는 “친구가 태우라고 해서 내가 태웠다.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100프로 잘못된 행동이고 처음부터 내가 탄 것부터 잘못된 행동이다. 어떻게 보면 감금이 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길게 진술하며, 정당성, 책임감, 도덕의식이 증가한 수준의 진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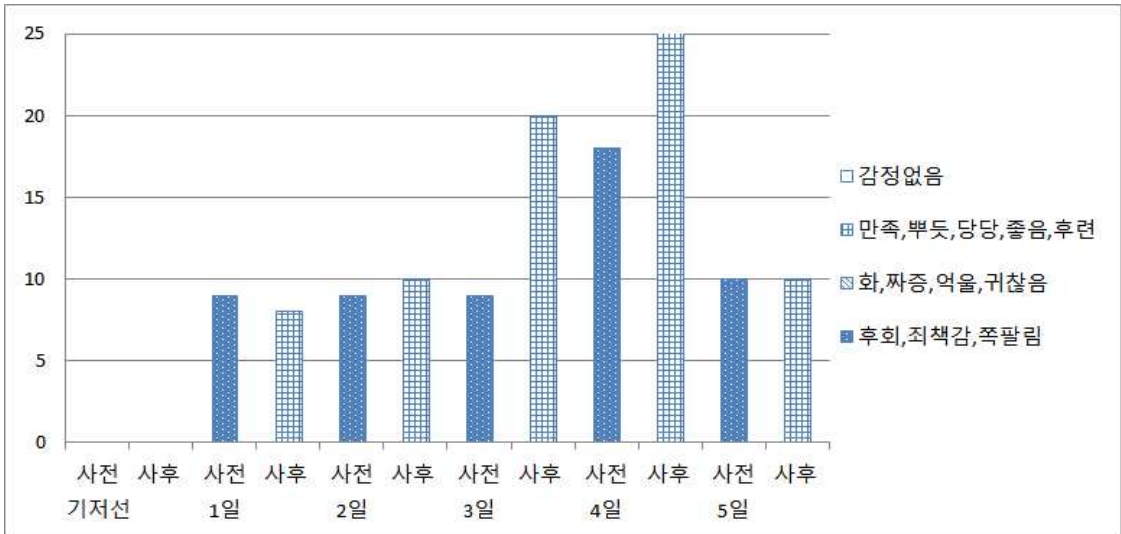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 반응을 찾는 모습도 1일차에는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를 안탄다. 근데 탈 수밖에 없다 재밌으니까. 얌전히 타야죠.”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에 절대 안탈 거다. 돈을 안갠다고 나쁘게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갠으라고 부탁하거나 부모님께 얘기해서 받는다.”라고 하며 다양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B양) 환사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가해자가 못마땅해요.

<표 4> B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를 통한 감정 변화

B양 14세	기초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후회, 죄책감, 쪽팔림 화,짜증, 억울함, 귀찮음			쪽팔림9		후회9		쪽팔림9		쪽팔림9, 창피함9		속상함 10	
만족,뿌듯, 당당, 좋음				뿌듯8		후련10		뿌듯 10, 자랑10		뿌듯10, 좋음10, 만족10		뿌듯10
감정없음												

<표 4>은 B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에 나타는 감정의 종류와 강도를 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2>은 <표 4>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고기록지 인터뷰 사전 사후 쪽팔림과 후회의 감정이 대안적 방법을 생각한 후 스스로 만족스럽고 뿌듯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림 2> B양의 감정 변화 그래프

B양은 같은 사건으로 오전에 다른 교육기관에 다녀오느라 기저선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해 ‘쪽팔린다’고 단답형으로 말했으며, 태도가 진지하지 않고 대답이 피상적이었다. 상황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드는 감정들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1일차**에 사건을 얘기할 때 장난처럼 “못생겨서 때렸다.”라고 말했다가 “돈을 안갠아서 때렸죠.”라고 정정하는 태도가 너무 장난스러웠다. 쪽팔린다고 한 후 다른 이유가 없다거나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가볍게 말로 풀면 된다는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할 경우 스스로 “뿌듯하다.”는 반응이 타인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폭력상황과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찾으면서 피상적이었던 대답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일차**에서 폭력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 사실일 수 있다는 증거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후회스럽다, 내가 선배니까 말로하면 들을 텐데. 계속 시간낭비하고.”라고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는 현재 처벌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후련하다는 반응은 피해자 공감보다는 대안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한 후련함 같았다. **3일차**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남자 선배가 어떤 여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자신이 여자를 못 때리겠으니 때리라고 불렀다”, “묻는 말에 대답을 안하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 “그리고 나서 편의점에 있다가 신고로 잡혔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모습에서 집단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았다. “후배는 솔직히 제가 선배인데 말로해도 듣잖아요. 근데 때려서 통제하려고 했다는 게 쪽팔려요.”라는 말에서 자신의 당위적 사고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 것 같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안적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기 시작했다. “언니로서 잘못된 걸 묻고, 모른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주고, 손대거나 욕을 안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 묻고,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대안을 찾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기보다는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을 안만들고 싶다는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개랑 지금 엄청 불편한사이다.”, “여기서 시간 낭비도 안할 것 같고”라는 말에서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느껴졌다. 사후 감정의 변화에서 후련함 보다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다고 하였다. **4일차**에서 가출한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폭력행동이 쪽팔리고, 창피함을 강하게 느꼈으며 “후배에게 말로 한다. 언제까지 갚을 건지 약속을 정한다. 말을 조곤조곤한다.”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다양해 졌다. 그리고 이후의 감정 또한 ‘뿌듯, 기분 좋다, 만족스럽다’라는 감정이 진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느껴졌다. “왜 때렸나 싶다. 속상하다 10점”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안갚아서 때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 돈(선배가 받을 돈이었고, 대신 때렸다)도 아니면서 때렸네”라고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주변사람의 비난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은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움이 되는 대안적 반응은 4일째보다 더 늘어났으며, 대안적 방법도 건강해졌다. “말로 한다. 어떤 내용을 잘 못했는지 묻고 사과를 받는다. 돈도 안갚은게 맞는 지 확인하고, 맞다면 갚으라고 한다. 지나면 웃어넘길 일(self talk)이라고 생각하고 넘긴다.”라는 대안반응이 프로그램 전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가 많고 산만한 모습들이 관찰되었지만 인지행동치료적 회기에서 잘 따라와 줬으며, 역할극에서 판사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갖고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다.

(C군) 너가 시비를 듣다 해도 나는 ‘다시 생각해.’

“처음 인터뷰할 때는 그 싸울 때 생각만해도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수업을 몇 번 듣고나니까 인터뷰할 때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나고 그랬고. 두 번째까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화는 없어지고 후회가 생기고, 억울함도 없어지고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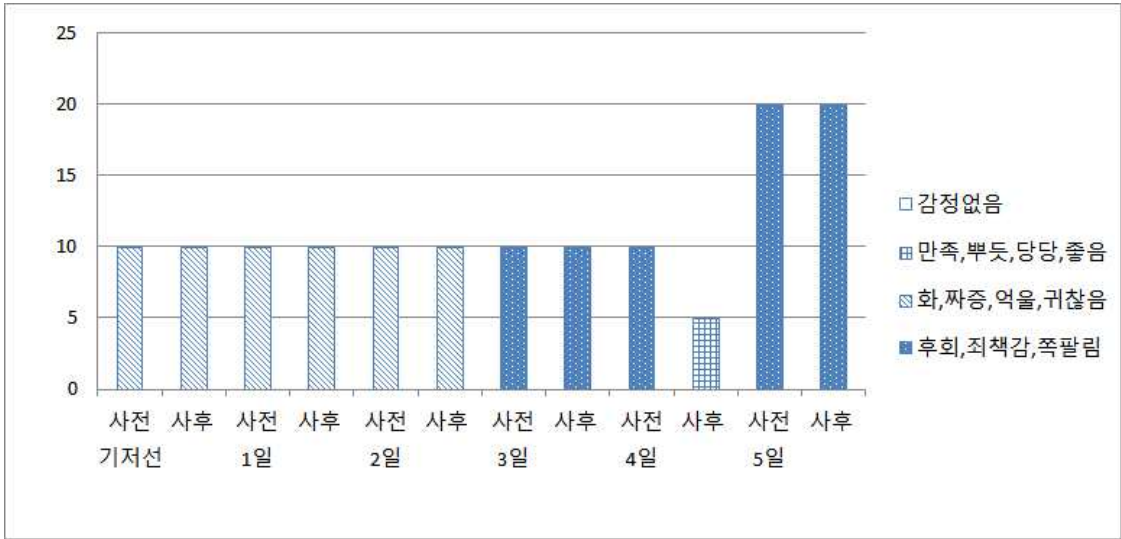
위의 글은 C군이 마지막 날 소감문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다. 첫날 지도자들은 방어적 태도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C군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했다. 모든 활동에서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자신의 경우 폭력행동이 처음인데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둘째 날까지 방어적인 모습이 보고되었다. 3일째 당위적 사고를 유연하게하기 위한 ‘중국 손가락트랩’ 활동 후에 “난 사과를 받아야했고 상대방은 사과를 안하려고 했죠. 이렇게 둘이 팽팽하면 서로 당기기보다는 좋게 얘기를 해야 해요.”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폭력 사건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표 5>, <그림 3>은 5일동안 C군의 감정변화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5> C군의 사고기록지 인터뷰를 통한 감정 변화

C군 15세	기초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후회, 죄책감, 쪽팔림							화가 안남 후회 10	후회 10	후회 10		후회 10 죄책감 10	후회10 죄책감 10
화,짜증, 억울함, 귀찮음	감정 안좋 음10	감정 안좋 음10	매우 나쁨 10	기분 나쁨 화10	짜증10	짜증10						
만족,뿌듯, 당당,좋음										기특함5		
감정없음												

기초선 인터뷰 때, 사건을 떠올리면 감정이 좋지 않다고 불편한 내색을 하였다. ‘개가 시비를 텃고, 친구들도 개가 잘못했다며 개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 상황이었기에 그



<그림 3> C군의 감정 변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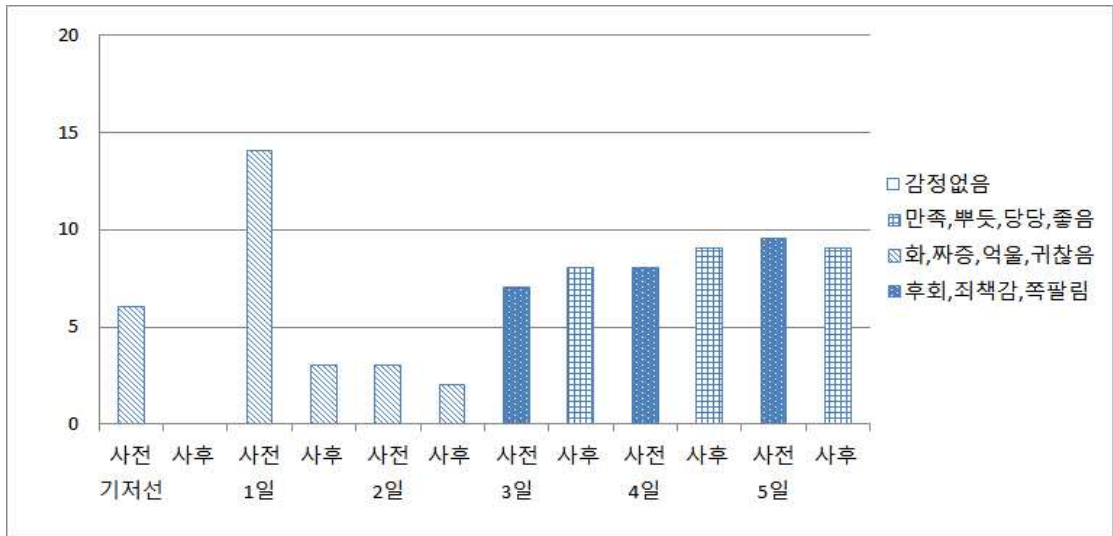
친구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둘째 날에도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비협조적이었고 “개가 시비만 안뒀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지속되었으며 감정은 짜증이 높았고 인터뷰 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셋째 날 사실과 판단/평가를 구분하고 우리가 판단/평가하는 사고가 익숙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폭력 상황을 문장으로 제시하고, 문장에서 판단/평가를 빼고 사실만을 적도록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00을 때렸다.’는 사실만 남는 것은 알게 된다. 즉, C군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판단이 폭력을 행사하게 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감정이 오늘은 바뀌었어요. 오늘 배운 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냥 무시를 계속 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불똥튀기면서 싸워가지고... 제 감정은 괜찮아졌어요. 화가 안 나요”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넷째 날 후회의 감정이 높게 지속되었고, 싸움의 원인이 “개가 저한테 말을 걸었더라도 내가 무시를 못해서”라고 하였다. 폭력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자신으로 귀인하게 되었다. 또한, “화를 참는 법을 알았죠. 화날 때 촉각에 예민하다는 걸아니까, 차가운 것을 만지면 화가 가라앉는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내가 기특해요.”라고 말하며 인터뷰 사후 기특함의 정서를 보였다. 다섯째 날에도 자신의 폭력 행동에 대해 타인을 탓하기 보다는 폭력의 주체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후회와 죄책감의 정서를 강하게 표현했다. 또한 이 정서는 인터뷰 후에도 지속되었다.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하자’라는 self talk을 하겠다고 하였다.

(D양) 새벽에 텐션이 올라 손맛(폭력)이 좋아요.

<표 6>, <그림 4>에 D양의 감정변화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6> D양의 사고기록지 인터뷰를 통한 감정 변화

D양 14세	기초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후회, 죄책감, 쪽팔림							착잡함7		후회8		후회 9.5	
화,짜증, 억울함, 귀찮음	(기분 나쁨) 화6		피곤7, 귀찮음7	귀찮음3	지루함3	지루함2						
만족,뿌듯, 당당, 좋음								뿌듯8		뿌듯9		당당9
감정없음												



<그림 4> D양의 감정 변화 그래프

가부키화장을 한 옛된 D양은 첫날 오전 내내 침체되어 있었고,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프로그램 시간에는 눈맞춤도 별로 안하고 의견도 내지 않다가 쉬는 시간이면 다른 조의 친구들과 욕설과 과감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지도자들을 당황시켰다. 기초선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 보다 자세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감

정, 재귀인하는 생각들은 단답형으로 모르겠다고 말하며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 프로그램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냥 처벌 받는 대로 받으려고요. 기분은 아무생각 안들어요. 그냥 피곤해요, 귀찮아요.”, “지금은 그때 상황이 스쳐지나가요. 그때 그 맘을 갖고 때렸던,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말 하였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심지어 ‘때릴 때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잘못들은 건 아닌가 싶었다. **2일차**에 사건에 대해 짧게 얘기하고 난 후 지루하다는 감정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재귀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후배가 가출을 해서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라고 사건의 원인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겼다. 어떤 생각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는 증거/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증거를 찾으면서 후배가 돈을 안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상황이었음을 생각해 낸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지루하다고 했으며, 다행히 지루함의 감정이 인터뷰 후에 조금 낮아졌다. **3일차** “착잡해요. 뭔가 사고 그만 칠라했는데 이러니까”라며 불평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후회의 감정을 보고하였다.

“오늘 손가락 트랩 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재판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출한 상태라 어떻게 돈을 갚겠어요. 저희들도 선배한테 빚이 있어서 그거까지 덧붙여서 그 애한테 갚으라 한 거예요.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긴 했어요. 아까 배웠듯이 그애 얘기 먼저 듣거나 하면서 말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생각대로 한다면 기분은 뿌듯할 것 같아요.”

4일차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 기분(손맛이 좋다) 때문에 폭력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후회의 감정이 전날보다 높아졌다. 또한, ‘때릴 때 기분이 좋아서, 후배가 말 꺼낼 때 듣기보다는 편잔을 주고, 후배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폭력의 원인을 재귀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그 일을 떠올리면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분 좋다고 사람 몸에 손대고 하는 것 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람 때리는 걸 안하려고요. 오늘 배운대로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냄새를 맡거나 하려고 해요.’라며 자신에게 도움되는 건강하고 다양한 대처방법을 생각해 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나니 뿌듯함으로 감정이 변화하였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후회가 돼요. 다른 감정은 없어요.”라고 했으며, 셋째 날 이후 후회의 감정이 조금씩 계속 증가 하였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때리진 않아도 덜때리지 않을까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신고했을 것 같아요.”, “조근

조곤 얘기하면 당당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D양의 경우 초기에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없고, 감정에 접촉하기를 저항하는 모습이 보였고, 심지어 “새벽에 텐션이 올라 손맛이 좋다.”는 말을 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감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3일 쯤 이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후회의 감정이 높아졌고, 폭력 상황에 대한 대안적 반응들이 다양하고 건강해졌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자신을 뿌듯하고 당당하게 한다는 정서를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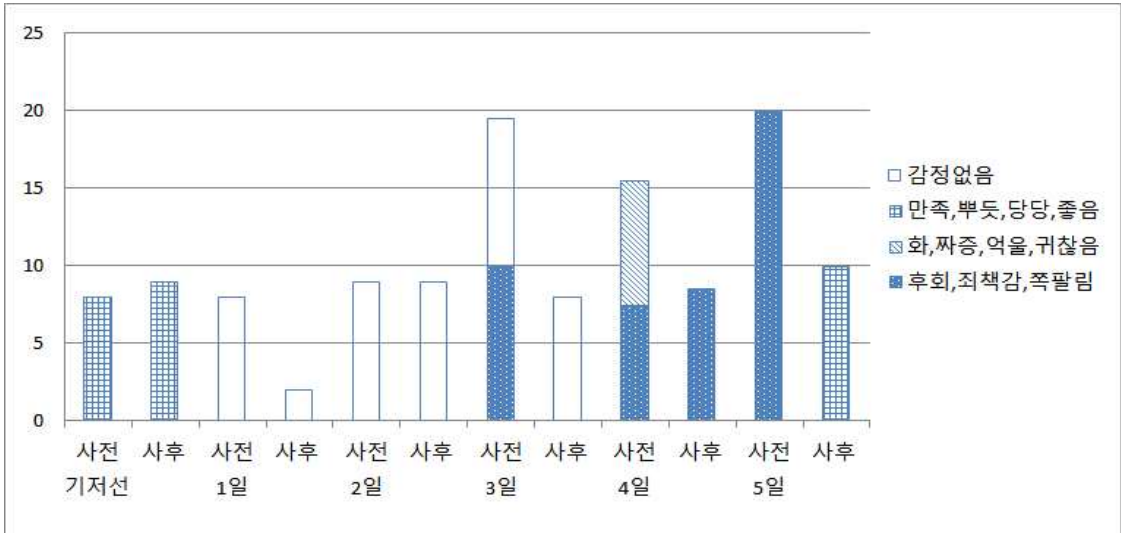
(E군) 의리 때문에 싸웠죠.

<표 7>, <그림 5>에 E군의 감정변화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7> E군의 사고기록지 인터뷰를 통한 감정 변화

D양 14세	기초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후회, 죄책감, 쪽팔림							후회10		후회7.5	후회8.5	후회10, 죄책감 10	
화,짜증, 억울함, 귀찮음									억울8			
만족,뿌듯, 당당,좋음	괜찮음8	괜찮음9										좋음10
감정없음			무감정8	무감정2	무감정9	무감정9	무감정9.5	무감정8				

E군은 만나이로는 19세 미만이지만 20살 성인이다. 현재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새벽에 일 끝나고 교육을 받으러오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무척 피곤해 했다. 첫날 응집력강화 게임을 할 때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진지한 이야기나 사고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기초선 인터뷰에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더 때렸어야하는데, 이렇게 될 걸...”이라고 말하면서 기분은 괜찮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른 낯선 반응이었다. 처분 전 교육이라는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잠도 못자고 참여해야하는 상황인데 괜찮다는 감정이 8 정도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1일차** 프로그램 후 “맞장뜨자해서 나가서 싸웠어요.”라는 말을 하였고, “감정



<그림 5> E군의 감정 변화 그래프

은 별로 없다, 아무 감정이 없어요.”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하는 지도자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 **2일차**에도 자신의 감정을 방어하며 “별 감흥이 없다”고 말했으며, 폭력을 행사한 다른 이유에 대해 ‘의리’ 때문에 싸우게 됐다는 말을 하였다. **3일차** 인터뷰에서 “별 감정이 없어요.”라고 하면서도 괜한 싸움에 졌다는 생각에 “후회가 된다.”고 하였다. 인터뷰 후에 또다시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다시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받았다. **4일차**부터 자신의 사건에 대해 후회스럽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친구 의리 때문에 따라나 가서 싸웠어요. 하지 말라고 말릴거예요.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해야죠. 인터뷰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고 때린 것이 후회되요.”라며 인터뷰 시작할 때보다 후회의 감정이 높아졌다. **5일차**는 후회와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때 참았으면 지금 여기 안있겠죠?, 잘 참으면 기분은 나아질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E군의 경우 나이 어린 동생들과 교육을 받는 상황이 불편했던 것 같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다,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점점 후회, 억울함, 죄책감 등의 분화된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를 활용한 활동에 덜 어려워했으며 폭력으로 인한 이득/손실을 기억하고 폭력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있게 말했으며, 지도자들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며 끈기있게 교육을 마쳤다.

2)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인터뷰 (사례 간 분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인터뷰 내용 중 시계열 흐름상에서 주제를 찾아 4개의 중심개념을 도출하였으며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인터뷰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

개 념	하위범주 (시계열)	상위범주
‘나는 폭력이 아니다.’, ‘쌍방폭행인데 억울하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여기 있다.’, ‘때릴 때 기분이 좋았다.’	1일차	사건에 대한 인식 : 객관적 시선이 생기다
‘이번 사건을 치면서 이득/손실을 생각해 봤는데 손실인 게 더 많구나.’, ‘뭔가 사고 그만 칠라했는데.’, ‘선배가 시켜서 후배를 때린 거니까 쪽팔려요. 후배는 솔직히 제가 선배인데 말로해도 듣잖아요. 근데 때려서 통제하려고 했다는 게 쪽팔리죠.’, ‘제가 그냥 무시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불통튀기면서 싸워가지고.’, ‘의리 때문에 싸움에 쫓겼다.’	3일차	
‘친구가 태우라고 해서 제가 태웠으니까 감금이 된 거고,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100퍼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탄 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이니까.’,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개 입장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선배한테 두들겨 맞으면 저 같아도 신고했을 것 같아요.’, ‘왜 때렸나 싫어요. 시비 든다고 나는 왜 거기서 반응을 했지. 말로 최대한 하지 굳이 손으로 나가서 죄책감이 들어요.’	5일차	
억울함(6점), 감정이 안 좋음(10점), 기분 나쁨(6점) 귀찮고, 피곤하고 즐린다, 아무생각 없다.	1일차	감정 : 후회와 죄책감이 생기다
억울하다, 후회된다, 쪽팔린다, 화가 안나고 후회된다, 착잡하다, 별 감흥이 없기만 했는데 후회되는 감정이 든다.	3일차	
때렸나 하는 속상함(10점), 후회됨(10점), 죄책감(10점)	5일차	
자신사건을 떠올렸던 내용에서의 원인 (다른 원인 못찾음)	1일차	재귀인 : 내가 선택한 상황
‘의리 때문에 싸우게 됐다, 선배가 시켜서 했는데, 선배가 시키더라도 안할 수 있는데 했으며, 후배 얘기도 들어봤어	3일차	

<p>야 했다, 상대방이 가출한 상태라 돈을 갚을 처지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헤아리지 못했다, 내가 그 애를 태워서 생긴 일이다.’</p>		
<p>‘친구나 선배가 시켰더라도 자신이 행동으로 옮겼고, 상대가 시비를 댔지만 자신이 반응을 했다, 선배의 힘으로 후배를 몰아붙였다, 상대가 먼저 싸우자고 했지만 내가 의리 때문에 싸웠다</p>	5일차	
<p>모르겠음, 딱히 없다, 무시하기, 참기</p>	1일차	
<p>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사건이 일어나게 될 원인을 안 만들기 위해 차에 타지 않고, 얘기(말)로 한다,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 먼저 사과한다, 참고 지나간다,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p>	3일차	
<p>청소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는다, 나쁜 짓으로 대응을 안 한다,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 (돈을 받기 위해)부모님과 함께 간다,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다, 말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다, 자기 말(self talk : 다시 생각해, 다 지나면 웃어넘길 일)을 사용한다, 다시 생각한다, 꿈키움에서 배운 것을 생각하자, 분노 조절을 위한 감각적 방법(물티슈, 좋은 향기)을 사용한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떠올린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일찍 귀가한다, 다른 동네에 가지 않는다, 조곤조곤 얘기한다, 나의 기분이 좋다고 사람 몸에 손대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참는다.</p>	5일차	<p>대안적 반응 : 다양하고 건강한 삶의 대처방안을 갖다</p>

(1)사건에 대한 인식 : 객관적 시선이 생기다

처음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이 여기 온 사건에 대해 떠올리고 싶지 않았으며, ‘나는 폭력이 아니다.’, ‘쌍방폭행인데 억울하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하며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때릴 때 기분이 좋았다.’는 말을 감정의 동요 없이 꺼내 놓기도 했다.

3일차 인터뷰에서는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번 사건을 치면서 이득/손실을 생각해 봤는데 손실인 게 더 많구나.’, ‘뭔가 사고 그만 칠라했는데...’, ‘선배가 시켜서 후배를 때린 거니까 쪽팔려요. 후배는 솔직히 제가 선배인데 말로해도 듣잖아요. 근데 때려서 통제하려고 했다는 게 쪽팔리죠.’, ‘제가 그냥 무시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불통튀기면서 싸워가지고.’, ‘의리 때문에 싸움에 쫓겨요.’라며 자신의 사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져나 온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에는 ‘친구가 태우라고 해서 제가 태웠으니까 감금이 된 거고,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100퍼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탄 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이니까.’,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개 입장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선배한테 두들겨 맞으면 저 같아도 신고했을 것 같아요.’, ‘왜 때렸나 싶어요. 시비 든다고 나는 왜 거기서 반응을 했지. 말로 최대한 하지 굳이 손으로 나가서 죄책감이 들어요.’라며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

(2) 감정: 후회와 죄책감이 생겼다.

기초 선에서는 한 명(18세, 남)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감정인 억울함(6점), 감정이 안 좋음(10점), 기분 나쁨(6점)을 호소하였고,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때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 목소리가 흥분되었었다. 3일 쯤부터 다른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짜증, 화, 귀찮음, 지루함, 기분 나쁨 대신 구체적인 자신의 감정이 드러났다. ‘억울하고, 후회된다, 쪽팔린다, 화가 안나고 후회된다, 착잡하다, 별 감흥이 없기만 했는데 후회되는 감정이 든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방어하고 저항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인터뷰를 하는 지도자들도 그들의 반응에 감동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5일 쯤은 왜 때렸나 하는 속상함(10점), 후회됨(10점), 죄책감(10점)의 감정이 대부분으로 다들 자신의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해 후회와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폭력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몇몇 청소년들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다.

(3) 재귀인 : 내가 선택한 상황.

인터뷰 초기에는 자신의 폭력 사건이 일어난 다른 이유에 대해 자신이 상황을 떠올렸던 내용 이외의 이유는 찾기 힘들어 했다. 대안적 반응은 잘 모르겠음, 딱히 없다,

무시하기, 참기라고 말했으며 감정의 변화는 특이하지 않았다. 3일째 ‘의리 때문에 싸우게 됐다’, ‘선배가 시켜서 했는데, 선배가 시키더라도 안할 수 있는데 했다.’, ‘내가 그 애를 태워서 생긴 일이다.’라는 진술을 보더라도 자신이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날에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상대방 탓으로 돌리던 설명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것임을 진술하며 책임지는 모습이 보고되었다. ‘친구나 선배가 시켰더라도 자신이 행동으로 옮겼고, 상대가 시비를 텃지만 자신이 반응을 했다, 선배의 힘으로 후배를 몰아붙였다, 상대가 먼저 싸우자고 했지만 내가 의리 때문에 싸웠다.’ 인터뷰 초기에 이번 사건이 상대방 때문에 벌어진 것이란 생각을 강하게 믿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이 원인제공을 했을 지라도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수용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늘어났다.

(4) 대안적 반응 : 다양하고 건강한 삶의 대처방안을 갖다.

프로그램 초기에 자신에게 도움되는 대처방안을 물었을 때 ‘교육받는 게 싫고 귀찮다.’, ‘피곤하고 졸린다.’, ‘아무생각 없다’라는 반응을 하였다. 3회차에 들어서면서 대안적 반응도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사건이 일어나게 될 원인을 안 만들기 위해 차에 타지 않는다.’, ‘얘기(말)로 한다’,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 ‘먼저 사과 한다’, ‘참고 지나간다’,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등의 반응들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반응은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었다. 5일차에서 자신의 폭력에 대한 대안적 반응은 3개에서 5개 까지 늘어났으며, 그 내용 또한 건강해 졌다. 폭력 상황의 원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는다.’, ‘나쁜 짓으로 대응을 안 한다’,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 ‘(돈을 받기 위해)부모님과 함께 간다.’,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다.’, ‘말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다.’, ‘자기 말(self talk : 다시 생각해, 다 지나면 웃어넘길 일)을 사용한다.’, ‘다시 생각한다.’, ‘꿈키움에서 배운 것을 생각하자.’, ‘분노 조절을 위한 감각적 방법(물티슈, 좋은 향기)을 사용한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떠올린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일찍 귀가한다.’, ‘다른 동네에 가지 않는다.’, ‘조곤조곤 얘기한다.’, ‘나의 기분이 좋다고 사람 몸에 손대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참는다.’

또한, 주관적인 설명에서 타인의 객관적 시선에 대한 인식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 값으라고)때렸네.’ 라고 할 것 같다는 애

기를 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류설영(1998)은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죄책감과 수치심이 낮다고 하였으며, 홍유진, 김시엽(2015)은 귀인성향과 또래 동조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죄책감에 따른 비행성향 점수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내적귀인성향이 높을수록, 또래 동조성이 낮을수록 죄책감이 높았다. 죄책감이 높을수록 비행가능성이 낮았으며, 높은 죄책감과 낮은 또래 동조성이 잠재적 비행성향을 줄이는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터뷰 결과를 보더라도 3일 제 이후 후회와 죄책감, 수치심이 증가하였으며, 상대방을 타하던 모습에서 폭력의 원인이 자신의 선택임을(내적귀인) 책임지는 모습이 증가하고 친구, 선배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사실을 확인하겠다(또래동조성의 감소)는 진술이 증가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죄책감의 증가와 또래 동조성의 감소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프로그램 종료 후 소감문에 대한 주제 분석

프로그램을 마친 처분 전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소감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내용들을 살펴보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주제별로 의미를 분석하였다. 인지행동치료기반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1) 처분 전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 참여 전 마음가짐)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어떻게 지내지.’, ‘부끄럽고 무섭고 창피해’, ‘많이 떨리고 이곳을 온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낯설고. 여기 온 것은 제 잘못이고, 제가 잘못했는데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무섭고 창피한데, 내가 잘못해서 왔으니 잘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다.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교육자체가 시간 낭비’, ‘교육에 참여하라고?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교육을 받으라니 당황스럽다.’

이미 벌을 받았는데 왜 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힘들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기 전 법원에서 명령을 받고 듣는 교육이 즐겁고 좋을리는 없을 것이다. 이 교육을 받고나면 어떻게 될지, 이 교육을 잘 받으면 약한 처분을 받게 될테니 잘 받아야겠다는 마음도 자리했을 것 같다.

2) 변화 끌어안기

(1) 생각

‘낯선 교육장소라는 생각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성찰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일주일 동안 생각, 감정, 공감 등에 몰랐던 사실을 알았고, 내가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고정관념의 변화’, ‘나는 죄인이다.’, ‘화나서 했던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내가 잘 못한 것을 잘 인정안하는 편인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정도 하게 된 거 같다.’, ‘친구들이 놀리면 무조건 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놀리거나 욕을 하는 행동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되었다.’

처음엔 꿈키움센터가 나를 벌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곳이 되었고, 폭력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바꿔주었다. “폭력이면 다 돼”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그런 폭력 행동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폭력행동의 결과 나는 죄인이고, 화로인한 행동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2) 정서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여길 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가해자의 입장으로 마냥 억울하기만 했지만, 아까 역할극을 할 때, 판사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보니 진짜 못마땅하기 만하고 보는 시선이 매우 안 좋아서 마냥 안 좋은

판결만 내고 싶었다.’,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잠을 못자고 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 피곤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선생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게 제 눈에에도 보여서 피곤해도 참고 열심히 수업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곳에 온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소감문에서도 인터뷰 내용에서 보였던 정서적 반응들이 비슷하게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인터뷰

‘인터뷰 할 때도 마음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화나고 그랬고, 두 번째까지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시다. 셋째 날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화는 없어지고 후회가 생기고, 억울함도 없어지고 죄책감이 생겼습시다.’,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곳을 오게 된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 전·후의 기분, 태도를 5일간 관찰하여 나의 기분이나 태도가 많이 변화하였다는 걸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게된 이유를 말하는 인터뷰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하루 한번 씩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인터뷰를 하며 내가 단순히 이 교육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을 바꾸고 다시는 폭력적인 행동과 생각을 안해야겠다고 굳게 다짐 하였다.’

인터뷰가 단순히 자신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활동이 아니었으며, 참여 청소년들 스스로 인터뷰 과정을 지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4) 치료적 관계

‘선생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게 제 눈에도 보여 피곤해도 열심히 참고 수업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폭력을 쓰기 전 이득/손실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기로 선생님들과 약속을 했다.’,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난 죄인인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니 내가 화가 나서 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는지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자

연스럽게 내 생각과 고정관념이 바뀌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선생님들은 내가 힘든 일을 생각해 주셨고,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하기 위해 치료적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논박하고 신념을 바꾸기 위해 질문을 이어가며, 치료장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고의 변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치료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교육을 받게 된 비자발적인 비행 청소년들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에 맞는 다양한 활동교구를 제작하고 소수의 참여자와 집단지도자와의 밀착된 활동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인터뷰가 비자발적 청소년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5) 다짐과 미래에 대한 조망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기억해서 좋은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이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피해자, 피해자 부모님에게 정말 미안하단 말과 죄송하단 말 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젠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나 자신과 약속할 것이며, 앞으로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교육을 모두 마친 나에게 앞으로 교육 때 배웠던 마음가짐으로 뚝뚝이 나아가라고 다짐하고 싶다.’, ‘다시는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여기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고, 제 꿈이 요리사인데 제 꿈에서 만약에 가게를 차린다면 손님과 싸우는 것, 화내는 것을 참는 방법과 안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청소년들이 교육 후 제출하는 소감문에 위와같은 다짐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꿈을 밝히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경험은 오래도록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인지행동치료 기반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의 변화와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질적사례연구이다. 하나의 프로그램 참여라는 단일 사례 연구 유형이며, 프로그램 내 개별 사례 각각을 시계열 적으로 검토하면서 사례 내 분석하고, 사례들 간의 중심 주제를 도출하여 통합하는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광역시 소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법원의 처분 전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폭력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월에는 5일 동안 35시간, 5월에는 3일 20시간 동안 비행명이 폭력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질적사례연구의 삼각화 검증의 방법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양적인 자기보고식 질문지 척도와 질적 자료로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프로그램 활동 결과물과 집단지도자들의 면담 및 행동관찰일지, 사고기록지 인터뷰, 소감문, 사후 전화 인터뷰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드러난 양적인 효과와 사고기록지 인터뷰의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분노표현과 청소년 부적응적 사고, 공격성,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있어서 폭력 비행 청소년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첫째, 분노 조절과 분노 억제는 프로그램 사후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지만, 분노 표현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고기록지 인터뷰의 감정의 변화에서 자신의 폭력 사건과 관련한 화, 짜증 등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감정들을 보면 프로그램 초기에 비해 3일째부터 감소하거나 사라졌으며, 사건에 대한 재귀인이나 대안적 반응 탐색을 통한 인지행동치료적 질문을 통해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가 날 때 몸의 반응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오감을 자극하여 화,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했을 때, 얼음과 같은 차가운 것에 몸이 반응해서 감정을 환기 시킨다고 말하며 얼음 대신 물티슈를 이용하여 분노를 진정시키겠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다.

자신만의 self talk을 만드는 등 분노 조절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6개월 뒤 추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중 수집한 인터뷰 자료에 대한 참여자 검증과 함께 추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12명 중 연락이 된 3명과 인터뷰를 하였다. 해당 청소년 들은 프로그램 교육 종료 후 1, 2호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종료된 청소년과 수강명령이 아직 진행 중인 청소년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3명 모두 새로운 비행행동에 연루되지 않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프로그램 전에 욕하는 성격이 10점 만점에 8점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점 정도라고 했으며, 분노조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 한 명은 “이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옆에서 보게 되는데, 친구들이 화감에 하는 행동들이고 그 결과가 보이니까 그런 행동에 함께하지 않는다. 굳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분노에 대해 자신이 인식하고 조절하고 있음을 얘기하였다. 비록 참여자의 주관적 보고이기는 하지만 6개월 후 추수 인터뷰에서도 분노조절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이 부적응적 사고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내면화문제 특정적 부적응적 사고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였고, 외현화 문제 특정적 부적응적 사고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고기록지 인터뷰에서 2일차 폭력 신념과 인지 왜곡, 인지 재구성을 통해 당위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상황에 대한 다양한 증거 찾기 과정을 거치고, 상황에 대해 판단/평가적 생각이 아닌 사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마음 밑의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후 외현적 부적응적 사고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외현화 특정적 부적응적 사고의 감소가 인지재구성과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와 행동 및 면담일지를 통해 후회, 죄책감, 창피함, 속상함 등의 정서가 3일 차 이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서를 보더라도 내면화 특정적 부적응적 사고척도가 증가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비하와 자기비난, 부정경험 과대평가의 상승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받는 경험이 그러한 사고를 증가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홍유진, 김시엽(2015)은 죄책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죄책감이 낮은 집단이 잠재적 비행 성향이 더 높으며, 죄책감이 비행가능성을 줄이는 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가지는 공격성향을 제제하는 기능을 하며,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배임호, 김응수, 하태선(2010)은 회복적 사법에서 비행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

하고 책임과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재범을 줄이고 재사회화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단순한 양적인 결과인 내면적 부적응적 사고의 증가로만 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하라는 측면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비행 청소년의 재범예방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뷰에서도 3일차 이후 폭력상황에 대해 더 다양하고, 더 건강한 대처 방법들을 생각해 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문제해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언어적 공격성은 유의미하진 않지만 평균값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인지행동치료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의 증가와 외현적 문제 특정적 부적응적사고의 감소, 신체적 공격성의 감소,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증가시키는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죄책감의 증가, 또래 동조성의 감소,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향상, 수치심의 증가, 정당성과 도덕성, 책임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인지행동치료의 어떠한 요소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고기록지 인터뷰를 통한 집단 지도자들과의 치료적 협력관계가 집단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대일의 치료관계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비록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이지만 그들을 죄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지도자들의 역할 또한 재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제2절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처분 전 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초범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의 결과를 비행의 정도 심각하거나 안정화 된 대상으로까지 일반화시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처분 전 교육대상자들 중 폭력비행 청소년들만을 모아 진행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 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되는 청소년들 중 동일한 비행명의로만 모집을 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단일 사전사후검사설계로 진행되어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였고, 통제집단과의 프로그램 효과성 비교를 진행하지 못했던 양적 효과분석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다.

셋째, 프로그램 종료 후 추수면담이 아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상생활 적응과 재범 여부,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 된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보고만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추수 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넷째, 본연구의 정성적, 정량적 효과성 분석은 3일 20시간, 5일 35시간 이라는 짧은 시간에 맞춰 구성되었다. 성상희(2013)는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공격신념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공격신념은 일반화된 신념으로 삶의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5일간의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어려웠다는 한계를 서술하기도 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에게 인지행동치료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인지를 다루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정성적, 정량적으로 나타난 효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 째,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에 5일간 참여한 5명의 참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3일 동안 참여한 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진행과 과정상에서 인터뷰 수집과 운영 시간의 미흡으로 수집된 자료의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해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청소년의 사례를 담을 수 있게 되면 자료의 엄격성을 더 지지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 인지행동치료적 요소들이 프로그램 진행 과정상에서 폭력비행 청소년들의 경험한 긍정적 변화를 질적 사례연구로 분석하고 정량적인 결과를 복합분석단위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폭력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지행동치료의 어떠한 요소들이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신념과 인지 재구성, 인지결핍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운형 (2016).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임상적-신경심리학적-뇌구조적 변화.
- 권해수, 김현정 (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 권해수, 윤일홍 (2019). 청소년 폭력과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28(1). 45-78.
- 김정민, 박준희, 한경은 (2007). 비행성향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 김선숙 (2016). 명상의 치유기제 - 알아차림(마음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 김슬아, 김인향, 최재원, 임재인, 김봉년 (2017).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인지행동치료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
- 김지현 (2003). 학교징계명령 청소년의 분노 조절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김현수, 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 김홍석, 최이순, 장효강 (2013). 단축형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611-625.
-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 류창현, 이수정 (2010).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과 분노감소를 위한 웃음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비교.
- 민성길, 이호분, 육기환, 남궁희승, 류경희 (1999).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집단치료의 효과 : 폭력 행동을 중심으로.
- 서명옥, 장현아 (2014) 여자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14(1), 283-283.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 서수균, 권석만 (2005).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 서수균, 권석만 (2005). 분노사고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 서수균 (2009). 한국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서수균 (2009).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 성은주, 성현란 (2005).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및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손병덕 (2010). 범죄청소년 재범예방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함의.
- 송성자, 정문자 (2002).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 7년 추적연구.
- 신혜민 (2016). 아동·청소년을 위한 분노 조절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 안경옥, 김희정 (2013). 청소년 범죄의 대응방안으로서의 뇌과학의 활용.
- 안지선, 김정남 (2013).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2001년~2011년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47-174.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주현, 민병배 (2010).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행동치료에서의 치료 관계.
- 이수연, 김형모 (2006).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위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이영식, 조주연 (1999).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의 표준화 연구.
- 이정운 (2007).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의 개발 및 예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1001-1021.
- 이정운 (2011). 개정판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1(1), 75-97.
- 이희정, 이성철 (2005).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 이희정 (2014).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서울: 청소년

상담원.

- 임소영 (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
- 천성문, 이영순, 이영림 (2000).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의 효과
- 최이순 (2002).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13-934.
- 최인섭, 이성식 (2010). 미국 OJJDP의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연구.
- 최인섭, 이순래 (2009). 청소년의 재범예방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 하태선, 배임호 (2014). 소년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관계회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 참여학생을 중심으로.
- 한동주 (2006). 멘토링을 활용한 비행예방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이수현 (2006). 청소년 비행관련 요인들의 집단간 비교.
- 현문정 (2014). 자기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 홍유진 (2015). 청소년의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귀인성향과 또래 동조성을 중심으로.
- 강진숙 (2016). 질적연구방법론.
- 한유리 (2015). 질적연구입문.
- 한유리 (2018). 초보연구자를 위한 질적 자료 분석 가이드.
- 경찰청 (2018).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 강화계획에서 인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8). 권해수, 윤일홍.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8). 법무부,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에서 인출. <http://www.cppb.go.kr/cppb/594/>
-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621.
- 이정빈 (2018). 질적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 청소년보호법, 2009.
- 청와대 (2018). 국민청원 및 제안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형사정책연구소식. 37. 25-3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에서 인출.

<http://www.crimestats.or.kr>

나무위키 <https://namu.wiki/w>

<해외문헌>

- A. Tashakkori와 C. Teddlie (2001). 통합연구방법론: 질적·양적 접근방법의 통합. (엄시창 역). 학지사
- Beck, A. T., Rush, A. J., Shaw, B. F.,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45-60.
- Buss, A. H., & Pett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hone, S. M., Lee, Y. S., Lee, H. R., (2000). The effect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on neurotic juvenile delinquents anger control. *Kor J Couns Psychother*. 12. 53-8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Chung, H. T., Behen, M. E., Muzik, O., Juhasz, C., Nagy, F., and Chugani, D. C.,(2001). "Local brain functional activity following early deprivation: A study of post-institutionalized Romanian orphans", *Neuroimage*. 14. 1290-1301.
- Dowden, C. & Serin, R. C. (2001). Anger management programming for federal offenders: The impact of dropouts and other program performance variables on recidivism. Research Report R-106. Ottawa: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 D'Zurilla. T.J., Nezu, A. M. & Maydeu-Olivares, A. (1999). Manual for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New York: Multy-Health System.
- D'Zurilla. T.J., Nezu, A. M. & Maydeu-Olivares, A. (1999). Manual for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North Tonawanda. New York: Multy-Health System.
- Fishbein, D., Sheppard, M., Hyde, C., Hubal, R., Newlin, D., Serin, R., et al. (2009), Deficits in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 treatment engagement in prison inmates.

- Law and Human Behavior*, 33, 419–435.
- Foley, A. (2008). The current state of gender-specific delinquency programm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 262–269.
- Friedberg, R. D., Gorman, A. A. (2007) Integrating psychotherapeutic processes with cognitive behavioral procedures. *J Contemp Psychother.* 37. 185–193.
- Friedberg, R. D., McClure, J. M., (2002). Clinical practice of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nuts and bolt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35–44.
- Friedberg, R. D., Viglione, D. J., Fidaleo, R. A., Celeste, B. L., Lovette, J., Street, G. et al., (1998) Measuring how we preach what we practice: psychoeducational change in depressed inpatients. *J Ration-Emotive Con-Behav Ther.* 16. 45–59.
- Friedberg, R. D., Miller, R. R., Perymon, A., Bottoms, J., Aatre, G., (2004). Using a session feedback form in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J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 22. 219–230.
- Gerdes, K. E., Segal, E. A., Jackson, K. F., & Mullins, J. L., (2011). “Teaching empathy: A framework rooted in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7(1). 109–131.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 E. H., Oh, K. J., Song, D. H., Kang, J. H., (2004).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Kor J Clin Psychol.* 23. 263–279.
- Judith, S. Beck (2017). *인지행동치료: 이론과 실제 제2판*. (최명희, 최상유, 이정흠, 김지원 역). 하나의학사.
- Kendall, P. C., Choudhury, M. S.,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ome past efforts and current advances, and the challenges in our future. *Cogn Ther Res.* 7. 89–104.
- Lement, E. M.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New York: Prentice-Hill.
- Landenberger, N. and Lipsey, M. W. (2005). “The positive effects of

- cognitive-behavioral programs for offenders: A meta-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effective treat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451-476.
- Lipsey, M. W., Landenberger, N. A, & Wilson, S. J. (2007).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programs for criminal offenders. *Cambell Systematic Reviews*, 6(1), 2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6).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d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115-133.
- McAdam, E. K. (1986).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nd its application with adolescents. *J Adolesc.* 9. 1-15.
- McCart, M. R, Priester, P. E., Davies, W. H., & Azen, R. (2006).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behavioral parent-training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antisocial youth: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4), 525-541.
- Miller, W. R., Rollnick, S., (2002). *Motivational interview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442-445.
- Morral, A, McCaffrey, D. F. and Ridgeway, G. (2004).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Treatment for Substance-Abusing Adolescents: 12-Month Outcomes of Youths Entering Phoenix Academy or Alternative Probation Disposition.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8. 257-268.
- way, G. (2004).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Treatment for Substance-Abusing Adolescents: 12-Month Outcomes of Youths Entering Phoenix Academy or Alternative Probation Disposition.”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8: 257-268.
- Persons, R. W. (2009). “Art Therapy with Serious Juvenile Offenders: A Phenomen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3: 433-453.
- Popma, A., Jansen, L. M., Vermeiren, R., Steiner, H., Raine, A, Wan Goozen, S. H.,

- & Dereleijers, T. A., (2006). “Hypothalamus pituitary adrenal axis and autonomic activity during stress in delinquent male adolescent and controls”. *Psychoneuroendocrinology*, 31(8). 948-957.
- Redding, R. E.(2008). Juvenile Transfer Laws: An Effective Deterrent to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10년 5월 7일
http://njjn.org/media/resources/public/resource_828.pdf에서 인출
- Reitzel, L. R. and Carbonell, J. L. (2006). “The Effectiveness of Sexual Offender Treatment for Juveniles as Measured by Recidivism: A Meta-analysis.” *Sex Abuse* 18, 401-421.
- Robert K. Yin (2005).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역). 한경사
-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research edition.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 Weiner, I. 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Wiley & Sons.
- Wilson, D. B., Bouffard, L. A., & MacKenze, D. L. (2005). A quantitative review of structured, group-oriented, cognitive-behavioral programs for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2), 172-204.
- Woolfenden, S. R., Williams, K. and Peat, J. K. (2002). “Family and parenting interventions for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6: 251-256.

<부록> 프로그램 참여 서약서

서약서

오늘부터 우리는 5일 동안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프로그램을 마칠 때 까지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아래 내용을 선생님과 집단 원들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나는 다른 집단원의 말을 경청하며,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겠습니다.
3. 나는 집단 프로그램 내에서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4. 나는 집단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모든 이야기를 집단 밖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5.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2019 년 월 일

참가자 :

지도자 :

<부록> 질문지 표지

질문지

안녕하세요?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에 참여를 환영합니다. 질문지 답변을 위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평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각이나 행동,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 정해진 답은 없으며 맞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모습, 행동과 가장 가까운 정도의 숫자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라도 빠진 문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 질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간단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익명처리 될 것입니다.

본 질문지의 답변 내용 또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년 월 일

참가자 동의

성명

<부록 1>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K)

Q1.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꼈을 때 일상적으로 얼마나 자주 아래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반응하는지 적당한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는 평소에 어떻게 느끼는가?	거의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면 잘 조절한다.	1	2	3	4
2	나는 화가 나면 표현한다.	1	2	3	4
3	나는 화가 나면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1	2	3	4
4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잘 참는다.	1	2	3	4
5	나는 자주 토라지는 편이다.	1	2	3	4
6	나는 사람들을 피하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말하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계속 냉정함을 지킨다.	1	2	3	4
9	나는 문을 쾅 닫는 행동을 한다.	1	2	3	4
10	나는 속이 많이 상할 때라도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11	나는 나의 행동을 조절한다.	1	2	3	4
12	나는 다른 사람과 싸움을 자주 한다.	1	2	3	4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다.	1	2	3	4
14	나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친다.	1	2	3	4
15	나는 화가 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자제시킬 수 있다.	1	2	3	4
16	나는 본인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흉을 보기도 한다.	1	2	3	4
17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난다.	1	2	3	4
18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화를 가라앉힌다.	1	2	3	4
19	나는 자주 욕을 한다.	1	2	3	4
20	나는 가능하면 참아주고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2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는 것 이상으로 화가 자주 난다.	1	2	3	4
22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싶다.	1	2	3	4
23	나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나의 기분을 쉽게 말한다.	1	2	3	4
24	나는 나의 화난 감정을 잘 조절한다.	1	2	3	4

<부록 2> 부적응적 사고척도(MTS-A)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혹은 어떤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숫자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인사를 해도 상대가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2	나는 무능력하다.	1	2	3	4	5
3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도 들이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신경을 안 쓰고 한다.	1	2	3	4	5
5	나는 모든 일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일이 잘못 되면 내 탓인 것 같다.	1	2	3	4	5
7	내가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1	2	3	4	5
8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거을 참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만약 내가 한 가지 운동을 잘 못한다면 다른 운동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11	나는 내 자신이 싫다.	1	2	3	4	5
12	가게 주인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건을 그냥 가져 갈 수도 있다.	1	2	3	4	5
13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설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	2	3	4	5
15	운동시합에서 우리 팀이 진 경우에 그것이 내탓인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6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1	2	3	4	5
17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면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5
18	전에 실패했던 일은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	1	2	3	4	5
19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설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에게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무엇이든지 실패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1	2	3	4	5
24	어떤 일로 누군가가 갑자기 화를 내면 그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5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26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참기가 어렵다.	1	2	3	4	5
27	친구와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앞으로도 그 친구와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8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얘기를 멈춘다면, 나에게 대 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제대로 하는게 별로 없다.	1	2	3	4	5
30	모든 사람은 법을 어기므로, 법을 어기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2	3	4	5
33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을 책망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그대로 참아서는 안 된다.	1	2	3	4	5
35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음을 뜻한다.	1	2	3	4	5
36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	1	2	3	4	5
37	돈이 많은 친구에게 빌린 돈은 꼭 갚지 않아도 괜찮다.	1	2	3	4	5
38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9	나로 인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다.	1	2	3	4	5
40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	1	2	3	4	5
4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1	2	3	4	5
42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43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44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일을 더 잘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다.	1	2	3	4	5

<부록 3>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Q-K)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평소의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로 평소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아래 척도 상의 적당한 숫자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닌 것 같다	한반쯤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1	2	3	4	5
3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1	2	3	4	5
4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1	2	3	4	5
5	누군가 화를 한것 돌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1	2	3	4	5
7	일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1	2	3	4	5
8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1	2	3	4	5
9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	2	3	4	5
10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 마디 해 줄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	2	3	4	5
13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이게 된다.	1	2	3	4	5
15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16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이곤 한다.	1	2	3	4	5
17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2	3	4	5
18	친구들을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19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닌 것 같다	평균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20	나는 소위 '내 친구' 라는 자들이 나에게 대해 몰래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21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23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	2	3	4	5
24	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26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7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부록 4> 단축형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中 합리적 문제해결)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평소의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로 평소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아래 척도 상의 적당한 숫자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결정을 할 때, 각 해결책의 앞뒤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1	2	3	4	5
2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모은다.	1	2	3	4	5
3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목표를 먼저 세운다.	1	2	3	4	5
4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목표를 먼저 세운다.	1	2	3	4	5
5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1	2	3	4	5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사고기록지 인터뷰

10분 인터뷰 : 당신을 말해주세요. (녹음)

날짜: 2019년 월 일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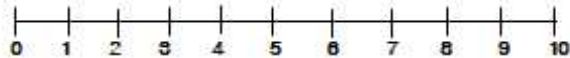
<인지행동치료 통합프로그램 경험 후 대안적 반응 탐색>

현재 처분을 받게 된 (폭력)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건내용 or 특이사항

Q1. 당시 상황을 떠올릴 때, 지금 감정은 무엇인가요? _____(정서반응)

점수는 몇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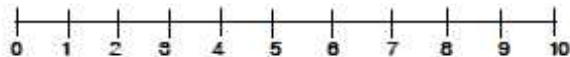
Q2. 지금 어떤 생각이 스치나요? _____(자동적 사고)

Q3. 그 사건이 일어난 또 다른 설명이 있을까요? _____(대안적 사고)

Q4. 나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_____(대안적 반응)

Q5. 위와 같은 대안적 반응 후 지금 나의 감정은? _____(정서반응)

점수는 몇 점?



<부록> 프로그램 과정평가 기록지_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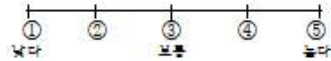
모듈별 프로그램 과정평가

이 프로그램은 총 10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각 모듈을 마친 후 평가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모듈의 주제(목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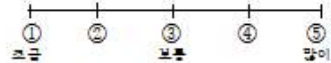
- ①자기소개&응집력강화 ②폭력이해 ③폭력신념 ④인지적재구성 ⑤폭력정서
 ⑥분노조절 ⑦비폭력적대화하기 ⑧공감훈련 ⑨문제해결 ⑩강점발견

2. 이 프로그램에서 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3. 위와 같이 평가한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4. 이 프로그램이 집단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5. 위와 같이 평가한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다음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6. 이 프로그램 전과 후 집단원의 경험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인상적이거나 기록해 두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 A군(양)의 감정, 반응, 태도, 말투, 표정, 행동이 프로그램 후 어떻게 변화되었음.
 B모듬 분위기, 의사소통, 협력 모습의 변화)

<부록> 1, 2차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달 간격으로 진행된 1회차, 2회차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특성분노조절, 부적응적 사고척도, 공격성, 사회적 문제해결척도 사전검사 실시 후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표 9> 두 집단의 사전 검사 동질성 검증

평가척도	집단(n)	평균순위	U	Z	p	
분노표현 척도	분노조절	1회차(5)	6.70	16.500	-.164	.869
		2회차(7)	6.36			
	분노표현	1회차(5)	7.10	14.500	-.496	.620
		2회차(7)	6.07			
	분노억제	1회차(5)	7.50	12.500	-.828	.408
		2회차(7)	5.79			
부적응적 사고 척도	내면	1회차(5)	6.80	16.000	-.246	.806
		2회차(7)	6.29			
	외현	1회차(5)	8.00	10.000	-1.218	.223
		2회차(7)	5.43			
공격성 척도	신체적 공격성	1회차(5)	7.80	11.000	-1.063	.288
		2회차(7)	5.57			
	언어적 공격성	1회차(5)	6.00	15.000	-.413	.679
		2회차(7)	6.86			
사회적 문제해결척도	1회차(5)	5.70	13.500	-.657	.511	
	2회차(7)	7.07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은 인지행동치료 통합 프로그램 전 평가 척도 상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며, 동일한 수준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록> 양적 자료 분석 결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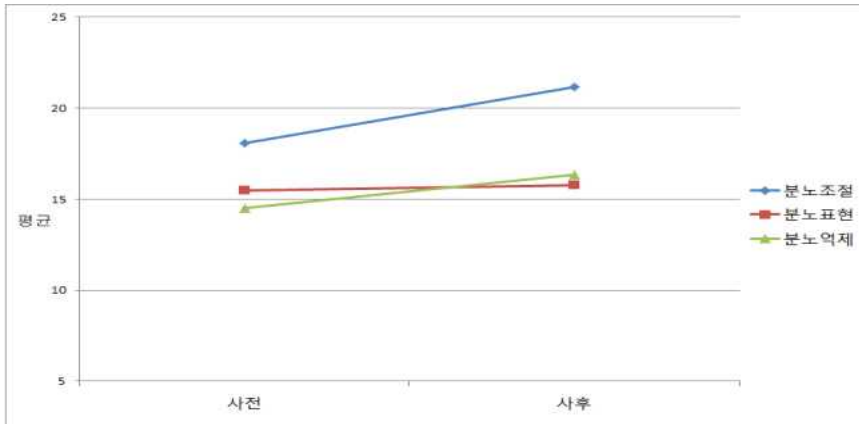
1)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의 변화

<표 10> 상태특성분노표현의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량

상태특성 분노표현척 도	N	사전		사후		negative Ranks (n)	positive Ranks (n)	동률 (n)	Z	p
		M	SD	M	SD					
분노조절	12	18.0	2.81	21.1	4.68	3.0(2 ^a)	6.6(9 ^b)	1 ^c	-2.408	.016*
분노표현	12	15.5	3.87	15.7	4.73	4.0(4 ^d)	5.0(4 ^e)	4 ^f	-.281	.779
분노억제	12	14.5	3.31	16.3	3.91	2.17(3 ^g)	7.44(8 ^h)	1 ⁱ	-2.400	.016*

*p<.05

- a. 분노조절사후 < 분노조절사전, b. 분노조절사후 > 분노조절사전, c. 분노조절사후 = 분노조절사전
 d. 분노표현사후 < 분노표현사전, e. 분노표현사후 > 분노표현사전, f. 분노표현사후 = 분노표현사전
 g. 분노억제사후 < 분노억제사전, h. 분노억제사후 > 분노억제사전, i. 분노억제사후 = 분노억제사전



<그림 6>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사전-사후 비교

<부록> 양적 자료 분석 결과 2

2) 청소년 부적응적 사고척도의 변화

<표 11-1> 부적응적사고 요인별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량

부적응적사고	N	사전		사후		negative Ranks (n)	positive Ranks (n)	동 률 (n)	Z	p	
		M	SD	M	SD						
임의결론내리기	12	13.0	2.89	10.5	3.28	6.79(7 ^a)	2.5(3 ^b)	2 ^c	-2.052	.040*	
자기비하	12	12.4	4.73	13.7	5.69	6.17(3 ^d)	5.21(7 ^e)	2 ^f	-.925	.355	
내 면	자기비난	12	10.5	3.17	11.9	4.27	6.25(2 ^g)	5.31(8 ^h)	2 ⁱ	-1.540	.124
	부정경험 과대평가	12	5.6	2.05	6.4	2.50	7.25(2 ^j)	5.72(9 ^k)	1 ^l	-1.694	.090
	문제행동 과소평가	12	10.6	4.18	8.3	2.96	6.56(9 ^m)	3.5(3 ⁿ)	0 ^o	-2.326	.020*
외 현	자기중심화	12	12.1	2.06	9.6	4.07	5.94(8 ^p)	3.75(2 ^q)	2 ^r	-2.047	.041*
	완벽과 인정추구	12	25.0	2.73	20.9	6.20	7.5(9 ^s)	3.5(3 ^t)	0 ^u	-2.242	.025*
	타인비난	12	9.7	1.76	7.6	2.46	6.3(10 ^v)	3.0(1 ^w)	1 ^x	-2.697	.007**
	낮은 인내력	12	10.8	3.71	11.5	4.44	6.0(5 ^y)	6.86(7 ^z)	0 ^{aa}	-.714	.475

*p<.05, **p<.01

a. 임의결론사후 < 임의결론사전, b. 임의결론사후 > 임의결론사전, c. 임의결론사후 = 임의결론사전

d. 자기비하사후 < 자기비하사전, e. 자기비하사후 > 자기비하사전, f. 자기비하사후 = 자기비하사전

g. 자기비난사후 < 자기비난사전, h. 자기비난사후 > 자기비난사전, i. 자기비난사후 = 자기비난사전

j. 부정경험과대사후 < 부정경험과대사전, k. 부정경험과대사후 > 부정경험과대사전, l. 부정경험과대사후 = 부정경험과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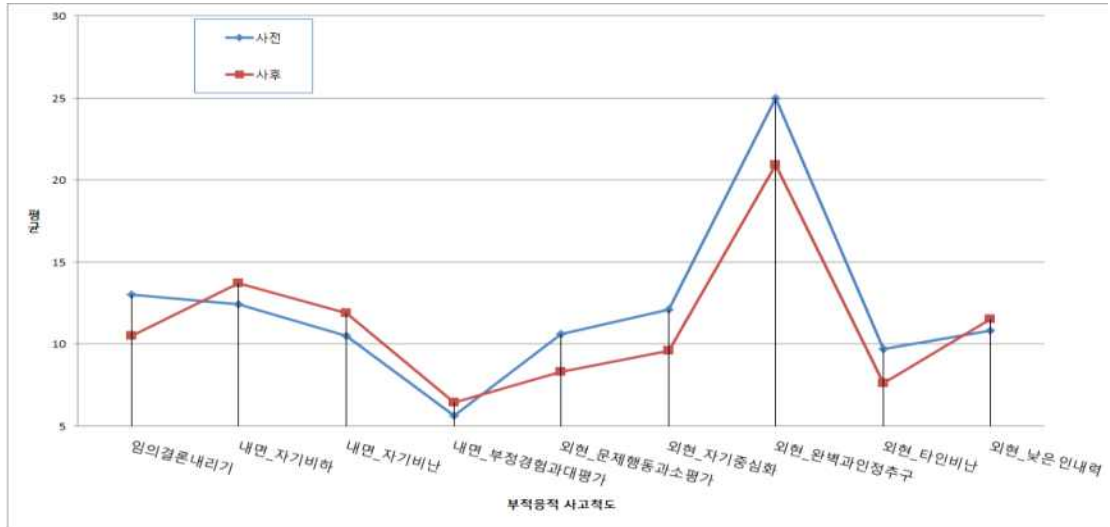
m. 문제행동과소사후 < 문제행동과소사전, n. 문제행동과소사후 > 문제행동과소사전, o. 문제행동과소사후 = 문제행동과소사전

p. 자기중심화사후 < 자기중심화사전, q. 자기중심화사후 > 자기중심화사전, r. 자기중심화사후 = 자기중심화사전

s. 완벽인정사후 < 완벽인정사전, t. 완벽인정사후 > 완벽인정사전, u. 완벽인정사후 = 완벽인정사전

v. 타인비난사후 < 타인비난사전, w. 타인비난사후 > 타인비난사전, x. 타인비난사후 = 타인비난사전

y. 낮은인내력사후 < 낮은인내력사전, z. 낮은인내력사후 > 낮은인내력사전, aa. 낮은인내력사후 = 낮은인내력사전



<그림 7> 내면, 외현적 부적응적 사고척도 사전-사후 비교

<표 11-2> 부적응적사고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량

부적응적 사고	집단	N	사전		사후		negative Ranks (n)	positive Ranks (n)	동률 (n)	Z	p
			M	SD	M	SD					
내면	실험 집단	12	28.5	7.73	32.0	11.43	8.75(2 ^a)	6.05(10 ^b)	0 ^c	-1.694	.090
외현	실험 집단	12	68.3	10.89	58.0	17.65	7.44(9 ^d)	3.67(3 ^e)	0 ^f	-2.199	.028*

*p<.05

- a. 내면-부적응적사고사후 < 내면-부적응적사고사전
- b. 내면-부적응적사고사후 > 내면-부적응적사고사전
- c. 내면-부적응적사고사후 = 내면-부적응적사고사전
- d. 외현-부적응적사고사후 < 외현-부적응적사고사전
- e. 외현-부적응적사고사후 > 외현-부적응적사고사전
- f. 외현-부적응적사고사후 = 외현-부적응적사고사전

<부록> 양적 자료 분석 결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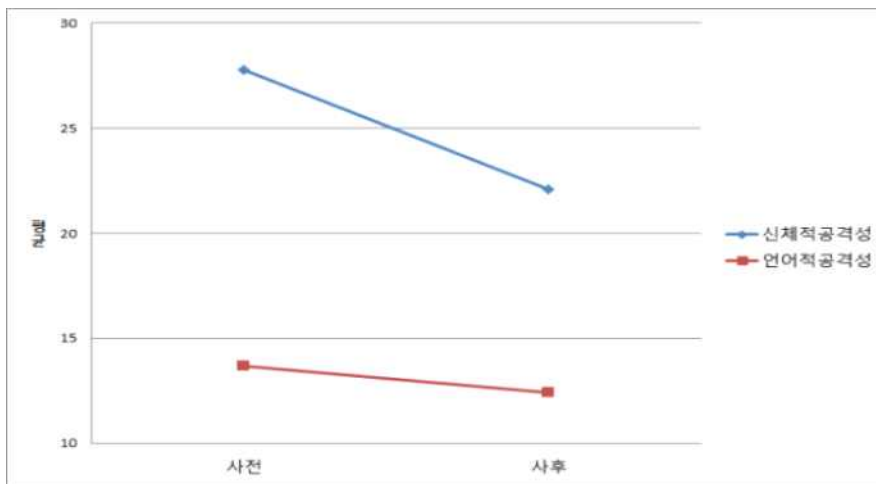
3) 공격성 척도의 변화

<표 12> 공격성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량

변수	N	사전		사후		negative Ranks (n)	positive Ranks (n)	동률 (n)	Z	p
		M	SD	M	SD					
신체적공격성	12	27.8	4.23	22.1	7.25	7.61(9 ^a)	3.17(3 ^b)	0 ^c	-2.318	.020*
언어적공격성	12	13.7	3.04	12.4	2.93	6.88(8 ^d)	5.75(4 ^e)	0 ^f	-1.260	.208
공격성	12	41.5	6.43	34.5	9.71	7.28(9 ^g)	4.17(3 ^h)	0 ⁱ	-2.081	.037*

*p<.05

- a. 신체공격성사후 < 신체공격성사전, b. 신체공격성사후 > 신체공격성사전, c. 신체공격성사후 = 신체공격성사전
 d. 언어공격성사후 < 언어공격성사전, e. 언어공격성사후 > 언어공격성사전, f. 언어공격성사후 = 언어공격성사전
 g. 신체공격성사후 < 신체공격성사전, h. 신체공격성사후 > 신체공격성사전, i. 공격성사후 = 공격성사전



<그림 8> 공격성 척도 사전-사후 비교

<부록> 양적 자료 분석 결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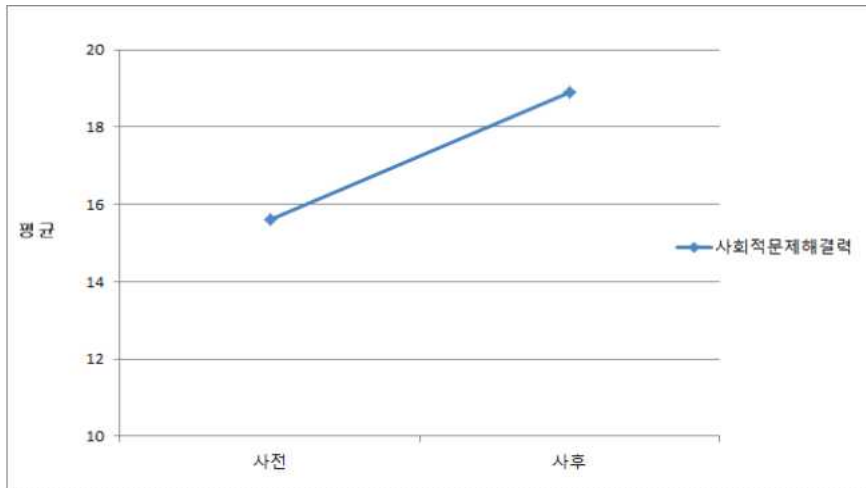
4) 사회적 문제해결력 변화

<표 13>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사전-사후 변화 검증통계량

변수	N	사전		사후		negative Ranks (n)	positive Ranks (n)	동률 (n)	Z	p
		M	SD	M	SD					
사회적문제 해결력	12	15.6	2.26	18.9	2.77	.00(0 ^a)	5.0(9 ^b)	3 ^c	-2.673	.008**

**p<.01

- a. 사회적문제해결력사후 < 사회적문제해결력사전,
- b. 사회적문제해결력사후 > 사회적문제해결력사전,
- c. 사회적문제해결력사후 = 사회적문제해결력사전



<그림 9> 사회적문제 해결력 척도 사전-사후 비교